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0회 국제학술세미나

접촉하는 예술들 : 예술과 기술의 공진화(共進化)

Arts in Contact : Co-evolution of Art and Technology

일시 2021년 12월 15일(수) 10:30-18:00 장소 ZOOM 화상회의
주최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후원 단국대학교·국제문예창작센터·국제도자문화교류센터·한국연구재단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0회 국제학술세미나

접촉하는 예술들 : 예술과 기술의 공진화(共進化)

Arts in Contact : Co-evolution of Art and Technology

일시 2021년 12월 15일(수) 10:30-18:00

장소 ZOOM 화상회의

주최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후원 단국대학교·국제문예창작센터·국제도자문화교류센터·한국연구재단

접촉하는 예술들
: 예술과 기술의 공진화(共進化)

SESSION 1.

(11:00 - 12:20)

사회 김태수(단국대)

개회인사

박덕규(한국문화기술연구소 소장)

축하인사

김수복(단국대학교 총장)

Protonism Theory

: 문학과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소개-

잭 마리나이(Gjekë Marinaj, 시인, 미국)

통역 - 최소담(전주대)

자유토론

SESSION 2.

(13:50 - 14:20)

사회 최수웅(단국대)

1+3 예술통합교육의 교과과정 및 교수학습법

박덕규(한국문화기술연구소 소장)

접촉하는 예술들
: 예술과 기술의 공진화(共進化)

SESSION 3.

(14:20 - 15:20)

사회 나소정(단국대)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

김인혜(국립현대미술관 근대미술팀장)

예술의 세 가지 세계

양구(梁玖, 베이징사범대학교, 중국)

통역 - 김설매(단국대)

SESSION 4.

(15:30 - 16:30)

사회 김태수(단국대)

그림책이 완성되기까지(IFFTS 프레젠테이션)

팬 형제(Terry Fan & Eric Fan, 그림책 작가, 캐나다)

통역 - 최소담(전주대)

일본에서 한국문학의 저변 넓히기

김승복(‘쿠온CUON’ 출판사 대표, 일본)

SESSION 5.

(16:40 - 18:00)

사회 김태수(단국대)

종합토론

질의 : 임수경(단국대), 최원재(단국대), 이루리(세종사이버대),

홍지식(한국문화기술연구소), 이은주(한국문화기술연구소)

차 례

SESSION 1.

개회인사	박덕규(한국문화기술연구소 소장)	10
축하인사	김수복(단국대학교 총장)	14
Protonism Theory		16
: 문학과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소개-		
작 마리나이(Gjekë Marinaj, 시인, 미국)		
번역 - 김구슬(협성대 명예교수)		

SESSION 2.

1+3 예술통합교육의 교과과정 및 교수학습법	32
박덕규(한국문화기술연구소 소장)	

차 례

SESSION 3.

-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 42
김인혜(국립현대미술관 근대미술팀장)
- 예술의 세 가지 세계 46
양구(梁玖, 베이징사범대학교, 중국)
번역 - 김설매(단국대)

SESSION 4.

- 그림책이 완성되기까지(IFFTS 프레젠테이션) 66
팬 형제(Terry Fan & Eric Fan, 그림책 작가, 캐나다)
번역 - 이순영(‘도서출판 북극곰’ 대표)
- 일본에서 한국문학의 저변 넓히기 74
김승복(‘쿠온CUON’ 출판사 대표, 일본)

SESSION 1.

개회인사

박덕규(한국문화기술연구소 소장)

축하인사

김수복(단국대학교 총장)

Protonism Theory

: 문학과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소개-

잭 마리나이(Gjekë Marinaj, 시인, 미국)

번역 : 김구슬(협성대 명예교수)

개회인사

박덕규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소장)

우리 한국문화기술연구소는 2004년 9월, 정보문화 시대의 학술 및 기술 상황의 급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신진연구 사업을 육성하고 한국 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되었습니다. 현 단국대 총장이신 김수복 교수가 소장으로서 연구소를 이끌었습니다.

설립과 더불어 ‘한국현대문학지형 D/B 구축 및 실용화방안 연구’ 등을 수주해 과제를 수행했고, 2006년 부설 연구소로 승격된 이후 ‘신동엽문학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 ‘『고려인 문학지도』 출판’, ‘아시아 문화콘텐츠 포럼’ 등의 연구과제를 수주, 수행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돼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문화예술의 소통과 융합 방안 연구’를 9년 간 수행했는데, 이는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북 문화예술 통합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 체제를 구축하는 연구로 국내외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이로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고 이를 진정한 의미의 남북통일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우리 연구소 그 외에도 매년 2~3회의 국내외 세미나 개최, 2회 학술지 발간, 문화기술과 남북한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서 발간 등으로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2018년 이후 현 박덕규 교수가 소장을 맡은 이후 2021년 9월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1+3 예술통합교육의 교과과정 및 교수학습법’ 과제가 선정되어 오늘 대외적으로는 그 첫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 예술교육의 변화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공동체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예술가와 예술 매개자를 양성하려는 취지에서 문학, 미술, 음악, 영화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소통과 융합을 통해 탈경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을 실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접촉하는 예술들 : 예술과 기술의 공진화(共進化)’라는 주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창작과 수용이라는 두 측면 모두에서 격변하고 있는 문화예술 환경에서 다시금 예술의 본질을 되짚고 그것이 이 시대에 어떻게 기능할 것인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국내에서 한 자리에 모시기 어려운 미국의 잭 마리나이(Gjekë Marinaj) 시인, 캐나다의 테리 팬(Terry Fan) 과 에릭 팬(Eric Fan) 형제 그림책 작가 등 국제적으로 저명한 문인을 비롯해 중국 베이징대학교의 미술학전공 양구(梁玖) 교수, 한일 문학교류에 앞장서고 있는 일본 ‘쿠온(CUON)’ 출판사 김승복(金承福) 대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의 기획전시를 이끈 국립현대미술관 김은혜 근대미술 팀장 등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훌륭한 생각을 잘 수렴해서 이번 1+3 예술통합교육 과제에 적용해서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는 자료에 보태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021. 12. 15.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박덕규

Opening remarks

박덕규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소장)

The Korea Culture Technology Institute was established in 2004 to nurture new research projects in step with the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era,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s cultural industry. The University's president Kim Soo-bok led the Institute as director for many years.

One of the Institute's early mandates was setting up a database for Korean modern literature and conducting research on methods for putting the database to best use. After gaining the status of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 in 2006, the Institute received new mandates, including drafting plans for a Shin Dong-yeop Literature Center, the publication of a 'Guide to the Literature of the CIS-Korean' and research projects such as the Asian Cultural Content Forum.

The Institute was also fortunate to be selected by the Korea Foundation University Focus Research Center as a support project from 2008 to 2017. For the Foundation, we conducted a study on 'communication and convergence methods of culture and ar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preparation for the Era of Unification'. For this 9-year project, the Institute collected and analyzed domestic and foreign data to build up a resource database as systematic preparation for integrating the two Koreas.

Our Institute hosts several domestic and international seminars annually, continues to publish two academic journals, and publishes research papers on cultural technology, culture and art in North and South Korea. Since 2018, when I took over as director, the '1+3 arts curriculum and teaching-learning method' was selected in September 2021 for support by the Humanities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and today we are pleased to hold our first international event.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ur research focuses on experimenting with borderless and inclusive education, and encouraging

communication between different fields of art and culture such as literature, visual arts, music, and film. Our aim is to nurture such artists and art mediators as they work in harmony with the shifting demands of university art education and our changing social communities.

Today, we are uniting together under the theme of ‘Contacting Arts: Co-evolution of Art and Technology’. We would like to revisit the essence of art in the rapidly changing art and culture environment, especially in the aspects of creation and interactive engagement, and how these will function in the present era.

For our first international event, we are pleased to welcome the internationally renowned American poet Gjekë Marinaj, picture book writers Terry Fan and Eric Fan of Canada, as well as Professor Liang Jiu(梁玖) who majored in Fine Arts Studies at Beijing University, Kim Seung-bok(金承福), CEO of "CUON", a publisher at the forefront of literary exchange between Korea and Japan, and Kim Eun-hye, director of the modern art team at the National Contemporary Art Museum.

We will be taking careful note of your wonderful ideas and will apply them to the 1+3 arts integration education task as materials for nurturing future talents. Thank you to everyone joining us today.

2021. 12. 15.

Dukkyu Park, Korean Culture Technology Institute,
Dankook University

축하인사

김수복

(단국대학교 총장)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총장 김수복입니다.

한국문화기술연구소의 제20회 국제학술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세미나에 함께 해주신 미국의 잭 마리나이 시인, 중국의 양구 교수, 캐나다의 테리 팬과 에릭 팬 작가, 일본 쿠온서점의 김승복 대표를 비롯한 국내외의 연구자와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국문화기술연구소의 소장으로 오랫동안 함께 한 인연으로 오늘의 이 세미나가 더욱 뜻깊게 느껴집니다.

현대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특히, 이전 세대에서는 문화 그 자체에 가치를 두었다면, 현대는 문화를 활용한 산업, 즉 문화산업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러한 시대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문화기술연구소는 그러한 노력을 주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우리 단국대학교는 문화기술 분야에서 강력한 인적, 학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프라와 연구, 정책 실천을 통하여 우리 대학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산업의 노하우를 작게는 아시아 전역에 걸쳐, 더 크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우리 대학 교수진과 대학원생, 학부생들의 열정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문화기술 산업을 통한 우리 대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은 누구에게나 친숙하고 중요한 문화자산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문화자산은 국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넓혀 아시아 시장, 세계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학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예술 고유의 연구 노하우와 IT의 기술적 연구 성과가 결합된다면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 결과를 낳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국제학술세미나를 계기로 예술과 기술의 접점에 대한 연구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중심에 우리 대학의 한국문화기술연구소가 자리잡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연구가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21세기 대한민국의 학문과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5.

단국대학교 총장 김수복

Congratulatory Address

김수복
(단국대학교 총장)

Greetings. My name is Kim Soo-bok, President of Dankook University.

First, allow me to extend my hearty congratulations on the occasion of this 20th International Academic Seminar hosted by the Korea Culture Technology Institute.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poet Gjekë Marinaj of the United States, Professor Liang Jiu of China, writers Terry Fan and Eric Fan of Canada, CUON representative Seung-bok Kim from Japan, and to our other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ers and distinguished guests from home and abroad, for taking their precious time to join in today's seminar.

This seminar is especially meaningful for me because I was with the Institute for many years as director.

Today we truly live in the age of culture. While previous generations valued culture as simply culture, today attention is focused on industries that use culture, and on fields that add value to the cultural industry.

In this process, if the Institute's unique research know-how combines with IT technical research, I believe it will produce even more systematic and efficient research.

I hope that this international academic seminar will stimulate more active research on the interface between art and technology. And I hope that KCTI will be positioned at the center of that research.

I hope that participants will share their research with the goal of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our university and of further boosting the competitiveness of 21st century academic and cultural arts in Korea.

Thank you.

2021. 12. 15.
Kim Soo-bok, President,

PROTONISM THEORY

: AN AID FOR IMPROVING THE SOCIAL FUNCTION OF LITERATURE.

—AN INTRODUCTION—

궡 마리아이

(Gjekë Marinaj, 시인, 미국)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distinguished guests, and dear faculty and students. I am grateful to Dankuk University, to its president, Kim Subok, to its director, Professor Park Dukkyu, and to Professor Choi Sodam for inviting me here today.

This lecture provides an introductory overview of Protonism Theory, offering a general description of its five central principles : Protonismiotics, Restitution, Inquiry, Truth and Ethics. In addition to its primary meaning, in Albanian, the language in which I initially conceived the theory, the created acronym PRITE implies several relevant connotations, such as anticipate (it), wait (for it), receive (it), and entertain (usually referring to hosting guests).

In 2005, when my book *«Protonism : Theory into Practice»* was published, the concept had immediate relevance in the Balkan context. The political and social turmoil of the post-communist era and the ethnic rage that resulted in the major conflicts of the Yugoslav Wars of the 1990s often turned literary criticism into a political, sectarian, ethnic or ideological weapon, to the disadvantage of literature.

Ideologues started entering the world of literary criticism, displacing the experts in the field. The influence of literary criticism no longer served literature's actual development. Literary criticism became false, failing in its mission of supporting the authenticity of literature. Fairness, the greatest value of criticism, no longer illuminated the literary world. Hatred reigned. It was generally forgotten that critical judgment should always aim to improve the development of literature and not to destroy it.

In the name of protecting readers from contact with unworthy literature and promoting the literary reputation of certain ideological groups' favorite authors, so-called critical reviews carried out pernicious attacks on authors they didn't like, forcing them to begin working under new pen names.

Many noted authors voiced their anger, demanding a kind of literary criticism that would safeguard their literary art against the vicious assaults they faced. Such authors insisted that their works were not mere subjective expressions but true literature based on talent, professionalism and concrete experience accumulated over their lifetimes. The dominant form of criticism in the region at that time in fact had little to do with literature.

For over a decade in the Balkans, the foundation of primitive, polemical criticism remained the same, regardless of the quality of the works that critics examined. The biggest challenge facing Balkan literature was that readers in the region started to ignore literature altogether. The noise and confusion made it too difficult for readers to determine literary works' value.

Meanwhile, Balkan writers and poets started to favor the idea that true art is recognized by the few, not the many, and that its value will be assessed by the next generation of readers. This fatalistic standpoint, which bypasses the role of critics entirely, also appears inadequate to supporting a thriving literary culture.

Against this backdrop, I created Protonism Theory as a recommended method for the practice of literary criticism. The theory suggests that a Protonist critic, when confronting a text, should seek first what is of aesthetic, intellectual and moral value in the work on its own terms. The critic who finds little value in a work should simply set it aside and refrain from discussing it at all – leaving it in obscurity – rather than making a display of contemptuous rhetoric.

Protonism, as a term, is a metaphor derived from the physics of the atom: instead of dwelling on the volatile, lightweight and negative electron, the Protonist critic attends to the enduring, weighty and positive proton. By inspiring literary critics to think differently and by encouraging them to enhance the role of literary criticism, Protonism Theory aims to serve as a positive catalyst for literature's social function.

It was my hope then, and still is now, that by providing a common ground for critics to evaluate a literary work more objectively, Protonism Theory can also apply to critical practice and theory in other parts of the world, in artistic work and many other disciplines.

Overview

Describe at length in my book *Protonizmi : Nga Teoria Në Praktikë (Protonism: Theory into Practice)*, Protonism describes a critical approach to literature and other branches of the humanities in connection with the fields of physics, chemistry and mathematics. The name derives from the proton, the positively charged particle found in the nucleus of the atom together with the negatively charged electron and the neutral neutron. By analogy, the Protonist critic searches for and emphasizes only the positively charged elements of whatever subject is under study. Using the mathematical number line as another analogy, we might say that Protonism concerns itself with values to the right of zero.

In Protonist literary criticism, a critic attempts to explain or interpret a literary work by illuminating its meaning and analyzing and assessing its aesthetics and overall value. A well-versed, accurate and fair-minded Protonist critic evaluates the work for criticism in terms of its aesthetic qualities, its moral imperatives and the intellectual questions it raises. The Protonist critic should be able to set aside any prejudices resulting from

personal experiences or societal restraints, seeking the objectivity with which to make unbiased assessments of literary works. No literary critics can entirely separate themselves from their own personal upbringing and morals, but they should make their best effort to separate the art they see from who they are as individuals. After reading a literary piece, it should be entirely clear to the literary critic which point of view the writer is evincing and basically what the writer is trying to say. The Protonist critic should help to clarify this perspective for readers.

Protonism may also be understood through a comparison to natural law and positivism. Natural law uses reason, including introspection and intuition, to gain insight into the human condition. Positivism, on the other hand, rejects the notion that insight can be gained in this way. The positivist approach asserts that accurate judgment of all subjects, including the human condition, must rely strictly on a scientific basis, with valid knowledge based on experience and positive verification. With its examination of how a critic's beliefs and attitudes contextualize criticisms of a subject under study, Protonism could be said to explore the introspection and intuition of others. Protonism, therefore, aligns more with natural law than with positivism, which considers introspection and intuition irrelevant.

Protonismiotics

The term Protonismiotics originates from a combination of Protonism and semiotics. The development of Protonismiotics serves as a corrective for critics, while also enabling readers to evaluate and assess works of criticism.

A Protonist critic uses Protonismiotics as a linguistic detective tool to determine whether a work of negative criticism amounts to an *ad hominem* attack on the author or is otherwise unscholarly. If it is, then the Protonist may classify it as non-public, private criticism and therefore non-essential discourse, or may choose to defend the author on a higher level. Like literary works with no positive qualities, negative criticism has the null value of a neutron, and does not merit a reply on a similarly negative plane. Similarly, in mathematics, a negative number plus a negative number only leads to a larger negative sum. This is why Protonist critics refrain from answering negative criticism with more negative criticism. To do so undermines productive discourse.

A Protonist literary critic should understand and act upon profoundly positive principles of language and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literary symbolism as an element of communicative behavior while engaged in literary criticism. The critic should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branches of pragmatics, semantics, syntactics and all other theories and philosophical approaches relevant to the state of literature today.

Concurrently, Protonismiotics elevates the reader to a critic's level, supplied with linguistic tools to perform an incisive evaluation of statements by other non-Protonist critics. Protonismiotics enables the reader to recognize the signs in a critical article's

language that can be decoded to discover the critic's professional character and ascertain whether the critic has approached the author fairly. In making this determination, it is important to bear in mind that Protonism views a work of literature as bigger than the author who created it, rendering the author's character irrelevant to whether or not the work is worth reading.

Protonist critics should recognize that as new socio-linguistic and literary theories appear, fresh themes of social structure develop. Literary texts represent the products of human thoughts and emotions expressed through words, and are not created by robots. Because the human factor matters, we need to appreciate criticism's potentially profound effect on literature and on how literature shapes communities.

Protonist critics aim for an active awareness of these concepts and social concerns so that we can play an enriching role in literature and in the daily life of human beings and their environments. In this process, we must also hone our mastery of the varied fundamentals of language. Keeping in mind these fundamentals as the basic foundation of linguistic knowledge, we need to think constructively whenever we conduct literary criticism. Protonism inspires the Protonist critic to study the relationships among words and their contexts in order to utilize linguistic strategies that can generate positives out of any decent literary work, because the analysis of any text is also an act of literary creation.

Restitution

Protonism associates the concept of restitution with what the theory upholds as a principle of moral right: don't punish, only reward. By restitution, Protonism means that literary critics should find ways to reflect authors' positive intentions while maintaining a standard of professionalism. The only form of restitution is reward. This means approaching the work with good will and in good faith.

A Protonist critic serves as a mediator to the reader. As such, the critic should make reparations for the past negative effects of literary criticism, finding ways to compensate readers for previously experienced losses or damages by providing guidance to appreciate works' beautiful aspects, not the dubious parts they might contain.

Rewarding worthy writers is beautiful in itself, but rewarding them by highlighting the beauty found in their works serves as a particular source of cultivation, especially for young, emerging writers. Acknowledging early-career writers for their work provides a source of pride and inspiration, while also enhancing their status in the society.

Protonism's restitutionary principle is a matter of literary equity and poetic justice. Restitution also represents a social responsibility, as a vital resource that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literature's function in the evolution of civilization.

In consistency with the approach fostered by Protonism's other tenets, the Protonist critic addresses negative comments only to defend the author from them, while refraining

from expressing personally held negative opinions. If the Protonist critic cannot find any positives in a work under study, then the work is considered to be the literary equivalent of a neutron and therefore null and not appropriate to discuss. Simply put, if the Protonist critic has nothing positive to say, then he or she says nothing. In other words, literature is art and should be celebrated. If there is nothing to celebrate, it is not literature. In that case, why attempt literary criticism about a work that does not qualify as literature?

Inquiry

A Protonist literary critic should always seek positive truth and information, as well as knowledge on how to select and present it to the reader. Although Protonism values inquiry for its epistemological emphasis on objective analytical skills, it insists that no matter how objective critics may be, their assessments require a sufficient amount of contextual erudition.

A Protonist critic strives to determine and convey how authors confronted with particular topics have debated these issues and responded to their colleagues' uncertainties, confusion or arguments in the past, offering unique stylistic and structural insights into literary discourse.

Considering a host of cultural conventions about race, gender and class, the Protonist critic also highlights the role of literary experience in determining what constitutes "good literature." While concentrating on literary assessments and the cultural repercussions of each given era's most important works, Protonist inquiry seeks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facilitating social consciousness and practices that advance writing quality for the sake of establishing a more useful contemporary literature.

That said, a formal and unbiased assessment of a literary work still necessitates an investigation to determine circumstantial facts. Protonist doctrine advises critics to conduct their inquiries in light of the actual conditions and needs of their literary communities.

Truth

Protonism asserts that truth with respect to literary ideologies is a temporary social construct subject to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structure of its origins and the epistemological circumstances of its development. In contrast to objectivist philosophy, Protonism maintains that there is no truth independent of the human mind. All that is considered truth is mediated in one way or another by each conscious individual. In that sense, what is considered a common truth can only last as long as its individual believer's conviction, because any truth is always pending modification and further

enhancement. This need for constant modification and enhancement renders the existence of a common truth impossible. A proposition is only believed to be true because the belief temporarily meets individual or collective needs.

The most fundamental duty of a Protonist literary critic is to tell the truth about the literary value he finds in a work – not to manipulate the good and look for negative elements that might misguide the reader as to the work's true qualities. A Protonist critic must understand many kinds of truth, such as the actual state of a matter, conformity with fact or reality, and mathematical truths. Such multifaceted perspectives will enable a Protonist critic to act on the idea of truth's subjectivity, with the beholder only likely to accept a personally believed truth as true.

Truths that cannot be fully proven stand as much of a chance of surviving as do apparently absolute truths, such as laws of physics. Many still believe in the existence of an all-powerful God, which science cannot disprove. The degree in which religious doctrines are seen as absolutely true also depends on the individual believer, and yet ancient religions persist today in forms that are recognizably relatable to their sources, while also reflecting diverse interpretations which reasonably need to arrive at terms of coexistence. In the same way, each given manifestation of literature and other arts may contain its own embodiment of truth. The Protonist critic should help to identify the presence of such intrinsic relative truths and to articulate their potential for harmonious interrelation.

Ethics

Protonism Theory does not propagate any one ethic or group of ethics. For an ethical orientation in the field of criticism, a Protonist works to determine how non-Protonist critics systematize, defend and recommend concepts of right and wrong behavior. In doing so, a Protonist may point out blind spots in critics' thinking which prevent seeing the positive in a given subject under discussion.

A Protonist literary critic should have a system of moral principles and should follow the rules of conduct recognized in society with respect to common interests and true literature. When writing about a work, a Protonist should act pragmatically, seeking to envision the highest possible good that might result from this task. This strategy should not represent an artificial effort : the tenets of Protonist ethics are based on the idea that moral obligations arise from natural human instinct and will. There are three main categories of moral considerations: teleological, deontological and utilitarian. Each type has its own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neither is completely correct. But in general, they all require that Protonist critics perform certain actions in order to improve themselves and the community.

Protonist ethics focus on a literary piece's content and meaning rather than on its author's other actions or background. This allows us to examine literary works' ethical

value from a higher standpoint. Otherwise, the difference between reading for moral message and investigating literary texts becomes difficult to distinguish. Protonist ethics can help us discover more complex intersections between literary text and moral values, because Protonism Theory emphasizes that ethical precepts are social in nature and therefore not absolute. Even the innate trait of human dignity is unique to individuals.

A prudent approach to works of literature as well as to literary critics themselves requires an emphasis on three primary virtues: justice, fortitude and temperance. In essence, literature and literary critics require an equitable treatment in light of these primary virtues. Such equitability in itself will yield the proper hierarchies of emphasis for a moral literary culture.

The ethical position of any one critic can in turn shape and distort the vision of the reader, especially if the reader is unfamiliar with the subject of critique. Protonist ethics avoids the narrow focus typical of less constructive standards of criticism. There are numerous forms of good and many kinds of morality. Searching for a single measure leads to confusion. Accordingly, Protonist ethics make no attempt to define standards of right and wrong, but rather emphasize the relationship between moral judgment and other areas of inquiry through sensitivity to varied forms of beauty.

Growing Influence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In the less than two decades since its introduction, Protonism Theory has impacted academic discussion across Europe and North America, and its influence continues to grow and spread across the globe.

Protonism Theory is an integral part of the academic curriculum of several universities, including Ss. Cyril and Methodius University in Skopje, Macedonia, the University of Belize, and Jinan University, a public research university based in Guangzhou, China.

Major news and literary outlets such as *The Dallas Morning News* have recognized the Protonism Theory as a source that "seeks to promote peace and positive thinking" through literary criticism. Uzbekistan's *Book World* newspaper has called Protonism "the theory the world has been waiting for," while Italy's *Corriere della Sera* has declared it "a great literary theory – Una grande teoria letteraria."

Protonism's proponents argue for the theory's potential to facilitate dialogue not only in the field of literature and philosophy, but also in many other areas of art and science. Protonist criticism's power lies in its capacity to encourage an open dialogue anchored at the heart of worldwide contemporary critical theory.

Because literature serves so many roles in society, there exists a wide range of literary works that appeal to individuals. Protonism Theory maintains that it is not the place of the literary critic to proclaim a piece of literature as substandard merely because the critic is not part of the intended audience. Unlike negative criticism, Protonist criticism identifies what resonates with universal ideals, which in turn supports the role

of literature in the formation of individuals and culture as a whole.

Proponents of Protonism advocate its use in the classroom, including the pre-college level, because of the way it highlights the positive elements of a piece of writing. Works considered classics represent models for students as they learn about reading, story crafting and the development of themes in writing. By identifying the positive and effective aspects of the writing of the masters, they can emulate, adapt and improve their own techniques to create quality pieces of writing. Focusing on an artistic work's positive aspects motivates student writers to create literature or criticism that truly impacts those who read it and may shape culture in positive ways.

In short, a major function of literature as a sophisticated art form is to create beauty, and the reason for art is to celebrate – to rejoice in – the universe, God, nature, life... Consequently, the Protonist literary critic's role is to find occasions to celebrate and to utilize them in order to facilitate the social function of literature. While Protonism Theory does not claim to have the power to transform the social or literary world, it maintains that literary critics utilizing positive, innovative thinking may contribute meaningfully to the betterment of human race.

프로토니즘 이론

: 문학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한 방안
-소개-

잭 마리나이

(Gjekë Marinaj, 시인, 미국)

번역 : 김구슬(협성대 명예교수)

저명한 게스트 여러분, 교수진 및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주신 단국대학교와 김수복 총장님, 연구소 소장님이신 박덕규 교수님, 그리고 최소담 교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강의에서는 프로토니즘 이론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면서, 프로토니즘이오티스(Protonism iotics), 반환(Restitution), 연구(Inquiry), 진리(Truth) 그리고 윤리학(Ethics) 등 다섯 개의 핵심 원리를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프로토니즘의 일차적인 의미 외에도, 첫 글자를 딴 PRITE는 제가 처음 이 이론을 구상한 언어인 알바니아어로 (그것을) 예상하다, (그것을) 기다리다, (그것을) 받다, 그리고 즐겁게 하다(보통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지칭하는) 등 상호 관계가 있는 여러가지 함축적 의미가 있습니다.

2005년, 저의 저술 『프로토니즘 : 이론의 실제』가 출간되었을 때, 이 개념은 발칸 지역의 상황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전쟁의 대대적인 분쟁을 유발한 민족적인 분노와 공산주의 시대 이후의 정치적, 사회적 소용돌이는 문학비평을 정치적, 종파적, 민족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무기로 바꾸는 일이 잦았는데, 이는 문학으로서는 불리한 일이었습니다.

이론가들이 문학비평계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문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문학비평의 영향은 이제 더이상 문학의 실제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학비평은 가짜가 되었고, 문학의 본질을 옹호해야 하는 임무를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비평의 가장 위대한 가치인 공정성은 더이상 문학계를 밝혀주지 못했습니다. 증오가 지배했습니다. 비평적 판단은 항상 문학의 발전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향상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 잊혀 버렸습니다.

가치 없는 문학을 접하지 못하도록 독자들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특정 이데올로기 집단이 좋아하는 작가들의 문학적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 그들의 문학비평은 자기들이 좋아하지 않는 작가들을 악의적으로 공격해서 그 작가들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필명으로 작품활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저명한 작가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내어 사악한 공격으로부터 그들의 문학 예술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문학비평을 요구했습니다. 이 작가들은 그들의 작품이 단지 주관적인 표현이 아니라 일생에 걸쳐 쌓아온 구체적인 경험과 전문성, 재능에 기반한 진정한 문학임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당시 발칸 지역의 지배적인 비평 형식은 문학과는 거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발칸 지역에서는 10여 년 이상, 비평가들이 평하는 작품의 질과는 관계없이 원시적이고

논쟁적인 비평의 토대가 그대로 유지되어왔습니다. 발칸문학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그 지역의 독자들이 문학을 완전히 도외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란과 혼란 때문에 독자들은 문학작품의 가치를 판단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한편, 발칸 작가들과 시인들은 진정한 예술이란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 의해 인정받는 것이고, 그 가치는 다음 세대의 독자들이 평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비평가들의 역할을 완전히 간과하는 이런 운명론적인 입장 역시 문학의 문화가 변창하기를 기대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저는 문학비평의 실천을 위해 추천할 만한 방법으로 프로토니즘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론은, 프로토니즘 비평가가 텍스트를 마주할 때, 우선 그 작품에서 그 나름의 미적, 지적, 도덕적 가치를 찾기를 제안합니다. 비평가가 어떤 작품에서 가치를 별로 발견하지 못할 경우 모욕적인 수사를 나열하지 말고 그냥 그 작품을 제쳐 놓고 논하지 않아야 합니다.

프로토니즘이라는 용어는 원자(atom) 물리학에서 나온 은유입니다. 프로토니즘 비평가는 불안하고, 가볍고 부정적인 전자(electron)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중량감 있고 긍정적인 양자(proton)에 주목합니다. 문학비평가가 색다른 시각으로 생각하도록 영감을 주고, 문학비평의 역할을 촉진시킴으로써, 프로토니즘 이론은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위한 긍정적인 촉매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비평가들이 문학 작품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동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프로토니즘 이론이 세계 여러 지역에 걸쳐, 예술 작품이나 많은 학문 영역에 있어서 비평의 실제와 이론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당시의 저의 희망이었으며, 지금도 역시 그러합니다.

개관

저의 저술, 『프로토니즘 : 이론의 실제』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듯이, 프로토니즘은 물리학, 화학, 수학 분야와의 관계 속에서 문학과 인문학의 여러 분야에 대한 비평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칭은 부정적 의미로 가득 차 있는 전자나 중성자와 더불어 원자의 핵 속에서 발견되는 긍정적 의미의 입자인 프로톤(양자)에서 나온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프로토니즘 비평가는 어떤 주제를 연구하든 그 주제의 긍정적 의미를 지닌 요소들만을 찾아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비유로 수학적 숫자를 사용해본다면, 프로토니즘은 0의 오른쪽의 가치들에 관심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토니즘 문학비평에서 비평가는 문학작품의 의미를 조명하고 그 미학과 전반적인 가치를 분석, 평가함으로써 문학 작품을 설명하거나 해석하고자 합니다. 조예가 깊고 정밀하고 공정한 프로토니즘비평가는 작품의 미적 특징, 그 도덕적 명령 그리고 지적 질문들과 관련하여 작품을 평가합니다.

프로토니즘 비평가는 개인적 경험이나 사회적 통제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편견도 제쳐놓고 작품을 공정하게 평가할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문학비평가라면 자신의 개인적 성장이나 도덕과 자기자신을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겠지만, 비평 대상 작품과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구분하려는 최선의 노력은 해야 합니다. 프로토니즘 비평가는 작품을 읽은 후에 작가가 어떤 관점을 보여주며, 기본적으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독자들에게

게 이런 시각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로토니즘은 자연법과 실증주의의 비교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연법은 성찰이나 직관 등 이성을 이용하여 인간 조건을 통찰합니다. 실증주의는 이런 방식으로 통찰할 수 있다는 시각을 부정합니다. 실증주의적 접근은 인간 조건을 비롯한 모든 주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경험이나 실증적 입증에 근거한 타당한 지식을 갖추어, 과학적 토대에 철저히 의존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비평가의 신념과 태도가 연구 대상인 주제에 대한 비평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살펴보면, 프로토니즘은 다른 사람들의 성찰과 직관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프로토니즘은 성찰과 직관이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실증주의보다는 자연법에 더 가깝습니다.

프로토니즈미오틱스

프로토니즈미오틱스라는 용어는 프로토니즘과 세미오틱스(기호학)의 결합에서 나온 것입니다. 프로토니즈미오틱스는 비평가들을 교정하는 역할을 하며 독자들이 문학비평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프로토니즘 비평가는 부정적인 비평이 작가에 대한 인신공격에 해당하는지 비학문적인지를 결정하는 언어적 판별 도구로 프로토니즈미오틱스를 활용합니다. 그 경우, 프로토니스트는 그 비평을 비공적인, 사적 비평, 따라서 비본질적인 글로 분류하거나, 아니면 그를 더 고차적으로 옹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특징이 없는 문학 작품들이 그렇듯, 부정적인 비평 역시 중성자처럼 무가치한 것이므로, 부정적인 차원에서 대답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수학에서 음수 플러스 음수는 더 큰 음수의 총량을 가져올 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프로토니스트 비평가들은 더 부정적인 비평으로 부정적인 비평에 대응하는 것을 삼가는 것입니다.

문학비평을 할 때, 프로토니즘 문학비평가는 언어의 심오하고 긍정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야 하며, 소통 행위의 한 요소로 문학의 상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비평가는 실용주의, 의미론, 통사론뿐만 아니라 오늘날 문학 현상과 관련한 철학적 접근 및 모든 이론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동시에, 프로토니즈미오틱스는 비프로토니즘 비평가들의 평을 날카롭게 평가해줄 언어적 도구를 독자들이 갖추도록 하여 그들을 비평가의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프로토니즈미오틱스는 비평의 언어에서 비평가의 전문성을 제대로 해독할 기호를 독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며, 비평가가 작가를 공정하게 다루었는지 여부도 독자가 알아내도록 해줍니다. 이런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프로토니즘이 작품을 창작한 작가보다 문학 작품을 더 큰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 일인데, 그 점은 작품이 읽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작가의 인성과 무관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프로토니즘 비평가는 새로운 사회언어적 문학 이론이 나타날 때, 사회 구조에 대한 새로운 주제가 발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문학 텍스트는 언어를 통해 표현되는 인간의 사유와 정서의 산물을 재현하는 것이지 로봇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 요인이 중요하므로 우리는 비평이 문학에 끼치는 잠재적이고 깊은 영향을 이해해야 함과 동시에 문학이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프로토니즘 비평가는 우리가 문학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환경 등에서 더 풍성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개념들과 사회적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인식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언어의 다양한 기본 원칙을 숙지하고 연마해야 합니다. 이런 기본 원칙들이 언어학적 지식의 기본 토대라는 점에 유념하면서, 문학비평을 할 때면 언제나 건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프로토니즈미오티스는 팬찮은 문학작품이라면 프로토니즘 비평가가 언어와 텍스트 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긍정적인 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적 전략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이는 어떤 텍스트 분석도 그것 역시 문학 창작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반환

프로토니즘은 반환의 개념을 프로토니즘 이론이 도덕적 올바름의 원리라고 주장하는 것과 연관시킵니다. 별하지 말고 오직 보상하십시오. 프로토니즘에서 반환이란 문학비평가가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작가들의 긍정적인 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환의 유일한 형태는 보상입니다. 이것은 선의와 호의로 작품에 접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토니즘 비평가는 독자와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로써 비평가는 과거에 문학비평이 끼친 부정적인 영향을 보상해야 합니다. 작품에 내포되어 있을 수 있는 미심쩍은 부분들 보다는 작품의 아름다운 면을 이해하도록 안내함으로써 독자들이 이전에 경험한 손실이나 피해에 대해 그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훌륭한 작가들에게 보상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강조함으로써 작가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은 자신을 더 연마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원천이 되며, 특히 부상하는 젊은 작가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한 작가들을 인정해주는 일은 자존감과 영감의 원천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또한 사회에서의 그들의 위상을 높여줄 것입니다.

프로토니즘의 반환 원리는 문학의 공평성과 시적 정의의 문제입니다. 반환은 문명의 진화에서 문학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프로토니즘의 여러 원리의 접근과 같은 맥락에서, 프로토니즘 비평가가 부정적인 언급을 할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작가들을 그 부정적인 언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경우일 뿐이지,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삼갑니다. 프로토니즘 비평가가 연구 대상인 작품에서 긍정적인 면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면, 그 작품은 중성자에 해당하는 문학이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으므로 논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프로토니즘 비평가는 긍정적으로 할 말이 하나도 없다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즉 문학은 예술이고 찬사를 받아야 합니다. 찬미할 것이 전혀 없다면 문학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학의 자격이 없는 작품에 대해 왜 문학비평을 하려 합니까?

연구

프로토니즘 문학 비평가는 항상 긍정적인 진실과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선별해서 독자에게 제시할 것인가를 알아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프로토니즘은 객관

적이고 분석적인 기술을 인식론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연구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비평가들이 아무리 객관적이어도 그들의 평가에는 상당한 맥락적 학식이 요구된다고 주장합니다.

프로토니즘 비평가는 특정한 주제를 다루는 작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논하고 과거에 그들의 동료들이 보여주었던 불확실성, 혼란, 논쟁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결정하고 전달하려고 애쓰면서, 고유의 문체적, 구조적 통찰력으로 문학 담론을 다룹니다.

인종, 젠더 그리고 계급에 관한 수많은 문화적 관습을 고려하여, 프로토니즘 비평가는 “좋은 문학”의 구성요소를 결정하는 데 문학적 경험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각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작품들에 대한 문학적 평가와 문화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면서, 프로토니즘적 연구는 보다 종합적인 접근법을 택하고자 하며, 보다 유용한 현대 문학을 정립하기 위해 글의 수준을 향상시켜줄 사회의식과 실천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렇긴 하지만, 문학작품을 공정하고 편견없이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정황적 사실들을 알아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프로토니즘 원리는 비평가들에게 그들 문학 공동체의 현실적 조건과 필요의 관점에서 연구를 하도록 권합니다.

진리

프로토니즘은 문학의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본 진리란 그 근원으로서의 사회적 구조와 그 발전으로서의 인식론적 환경에 따라 쉽게 바뀌는 일시적인 사회적 구성체라고 주장합니다. 객관주의 철학과는 반대로, 프로토니즘은 인간 정신과 별개로 존재하는 진리는 없다고 역설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방식대로 진리를 정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통의 진리란 그것을 개인적으로 믿는 자의 확신이 있는 동안만 지속될 뿐입니다. 어떤 진리든 언제나 수정과 더 많은 향상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수정과 향상이 필요하므로 공통의 진리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나의 명제는 그 믿음이 일시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진리라고 믿어질 뿐입니다.

프로토니즘 문학비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좋은 것들을 조작하거나 그 작품의 진짜 좋은 점에 대해 독자를 오도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한 작품에서 발견되는 문학적 가치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프로토니즘 비평가는 사물의 현상, 사실이나 현실에 대한 순응, 그리고 수학적 진리 등 수많은 종류의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다면적인 시각은 프로토니즘 비평가가 진실의 주관성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보는 사람은 그가 개인적으로 믿는 진실을 ‘참’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증명될 수 없는 진리라 해도 그것은 물리학의 법칙들처럼 외견상 절대적인 진리가 생존하는 만큼 생존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의 존재를 믿고 있고, 이는 과학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 교리가 어느 정도로 절대적 진리로 보이는가는 개별 신자에 따라 다르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종교는 공존이라는 조건에 부합해야 할 여러 가지 해석을 반영하기도 하겠지만, 오늘날도 그 근원과 상당히 유사한 형식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학과 또 다른 예술 형식들이 보여주는 현상은 각기 나름의 진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프로토니즘 비평가는 이런 내재적으로 관계있는 진리의 존재를 확인하고 조화로운 연관성의 잠재력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윤리학

프로토니즘 이론은 어떤 하나의 윤리나 한 집단의 윤리를 선전하지 않습니다. 비평 분야에서 윤리적 방향을 정하기 위해 프로토니스트는 비프로토니즘 비평가들이 어떻게 옳고 그른 행동의 개념들을 체계화하고 옹호하고 권하는지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프로토니스트는 논하고 있는 주제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지 못하게 하는 비평가들의 사유의 맹점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프로토니즘 문학비평가는 도덕 원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공동의 이해와 진실한 문학에 대해 사회가 인정하는 행동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한 작품에 대해 글을 쓸 때, 프로토니스트는 이 작업에서 생기는 최고의 선(善)을 상상하면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전략은 인위적인 노력을 구현해서는 안 됩니다. 프로토니즘 윤리학의 원리는 도덕적 의무가 자연스러운 인간 본능과 의지에서 나온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사고의 중요한 세 가지 범주는 목적론적, 의무론적, 공리주의적 범주들입니다. 각 유형은 각기 고유한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으며,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것은 모두 프로토니즘 비평가들이 그들 자신과 공동체를 개선시키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프로토니즘 윤리는 그 작가의 여러 행동이나 배경보다는 문학 작품의 내용과 의미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높은 견지에서 문학작품의 윤리적 가치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 메시지를 얻기 위해 읽는 것과 문학 텍스트를 연구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프로토니즘 윤리는 문학 텍스트와 도덕적 가치 사이의 보다 복잡한 교차점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프로토니즘 이론은 윤리적 개념들이 본질적으로 사회적이고, 그러므로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존엄성의 내면적 특성조차 개개인에게 고유한 것입니다.

문학비평가들뿐만 아니라 문학 작품에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본적인 덕목이 필요합니다. 정의, 용기, 절제입니다. 본질적으로 문학과 문학 비평가들은 이 세 가지 주요한 덕목에 따라 공정한 대접을 받으려 합니다. 이 공정함은 그 자체로 도덕적인 문학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강조되어야 할 그에 합당한 체계를 낳게 됩니다.

비평가의 윤리적 입장이 이번에는, 특히 독자가 비평의 주제를 잘 알지 못할 경우, 독자의 관점을 형성하거나 이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토니즘 윤리는 비교적 건설적이지 못한 비평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좁은 사고를 방지합니다. 수많은 형태의 선(善)이 있고 수많은 종류의 도덕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의 기준만을 추구한다면 혼란만을 야기할 뿐입니다. 따라서 프로토니즘 윤리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의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미(美)에 대한 감수성을 통해 도덕적 판단과 많은 분야의 연구 간의 상호 연계성을 강조합니다.

영향력의 확장과 교육적 결과

프로토니즘 이론이 소개된 지 20년이 채 되지 않은 지금, 프로토니즘 이론은 유럽과 북미

전역의 학술적 논의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 영향력은 점차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로토니즘 이론은 마케도니아 스코피아 소재, 성 키릴과 메토디우스 대학교(Ss.Cyril and Methodius University), 벨리즈 대학교(University of Belize), 그리고 중국 광저우에 기반을 둔 지난 대학교(Jinan University) 등 여러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핵심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댈러스 모닝 뉴스」(The Dallas Morning News) 같은 주요 신문 및 문학 매체는 프로토니즘 이론을 문학비평을 통해 “평화와 긍정적 사고를 고취시키는” 원천으로 인식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북 월드」(Book World) 신문은 프로토니즘을 “세상이 기다려왔던 이론”이라고 했는가 하면, 이탈리아의 「꼬리에레 델라 세라」(Corriere della Sera)는 프로토니즘을 “위대한 문학 이론”(Una grande teoria letteraria)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프로토니즘 지지자들은 문학과 철학 분야뿐 아니라 예술과 과학의 많은 영역에서 대화를 용이하게 하는 이 이론의 잠재력에 지지를 표합니다. 프로토니즘 비평의 힘은 열린 대화가 전 세계의 현대 비평 이론의 중심에 기반을 두도록 힘을 불어넣는 데 있습니다.

문학은 사회에서 대단히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호소력이 있는 문학 작품은 아주 많습니다. 프로토니즘 이론은 비평가가 대상 독자층이 아니라고 해서 문학 작품을 함부로 폄하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부정적인 비평과 달리, 프로토니즘 비평은 보편적 이상에 부합하는 것에 공감을 표하는데, 이 보편적 이상은 이제 개인뿐 아니라 문화 전반을 형성하는데 문학이 하는 역할을 지지합니다.

프로토니즘 지지자들은 중등학교 및 대학 강의실에서 이 이론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이 이론이 작품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강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고전은 학생들이 읽거나 창작 그리고 글쓰기 주제를 발전시키는 법을 배울 때 학생들에게 모델을 제시해줍니다. 대가들의 글이 보여주는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면들을 확인함으로써 학생들은 좋은 글쓰기를 위해 모방하고 그들 나름의 기술을 적용하여 글쓰기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술 작품의 긍정적 면들에 초점을 맞추면 학생 작가들은 문학 창작이나 비평을 하도록 동기를 얻게 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글을 읽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문화를 형성하게 될 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세련된 예술 형식으로서 문학의 중요한 기능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고, 예술의 존재 이유는 우주, 신, 자연, 인생...을 찬미하고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프로토니즘 문학비평가의 역할은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를 찬양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프로토니즘 이론이 사회적, 문학적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를 활용하는 문학 비평가들은 더 나은 인류를 만드는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SESSION 2.

1+3 예술통합교육의 교과과정 및 교수학습법

박덕규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소장)

1+3 예술통합교육의 교과과정 및 교수학습법

박덕규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소장)

1 + 3 예술통합교육의 교과과정 및 교수학습법

박덕규
(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1+3 예술통합교육의 교과과정 및 교수학습법

1 예술통합교육이란?

- ▶ 문예창작, 음악, 미술 등의 각 예술분야 청년층에 대한 통합교육.
- ▶ 예술 분야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경험을 통한 예술 활용성 강화.

기존 예술(통합) 교육은?

- ▶ 일반 대학 : 한 예술 분야를 심화, 타 예술 분야는 경험 부재.
- ▶ 유아, 성장기 대상 감성통합, 협동, 문제해결 등 목적.

cf.) STEAM Literacy : 실생활 문제 해결 - 융합적 사고력 배양

Science(과학) Mathematics(수학) Technology(기술) Arts(인문·예술) Engineering(공학)

• 스티브 잡스



2 연구배경

- ▶ 이성과 감성의 통합, 심미적 집중을 요구하는 미적 교육의 이상형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정 필요성 대두.
-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 예술교육의 변화 요구에 따라
사회 공동체 속의 예술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절실성 증대.
- ▶ 현 예술대학 내 학과, 학부 체제의 현실에 부합하는 실천적 예술통합 교육 프로그램 필요.
- ▶ 예술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해 새로운 관계들을 생산하는 예술통합교육 모델 필요.
- ▶ 한류 등의 글로벌 위상이 고양된 상황에서 예술통합의 관점에서 한국 문화예술의 질적 확산을 촉진할 시의성 대두.
- ▶ 타 장르, 타 매체, 타인과 만나는 체험 제공을 통한 예술의 사회성, 윤리성, 공공성 문제 대두.

3 두 가지 목표

첫째. 예술을 위한 통합

- ▶ 예술은 인간, 사물, 환경 등에 대한 관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화.
- ▶ 예술은 다른 분야의 예술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심화.

예술가 양성

둘째. 통합을 위한 예술

- ▶ 예술에 대한 통합적 경험은 예술의 활용성을 강화.
- ▶ 예술통합 그 자체로서의 새로운 예술성 지향.

예술 매개자 양성

통합적 예술가 양성

4 1+3 문화예술통합교육이란?

- ▶ 1+3 : 한 분야의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타 분야의 문화예술을 통합, 시행하는 교육
- ▶ 백화점식 체험이 아닌 한 예술 분야를 중심에 둔 상호융합적 창작 실험 공유

1단계 예술대 전공기초 과목 <문화예술, 경험에서 응용까지 1>, <문화예술, 경험에서 응용까지 2>운영

2단계 교양대 일반교양 과목으로 <문화예술, 기획에서 비평까지 1>, <문화예술, 기획에서 비평까지 2>운영



4 1+3 문화예술통합교육이란?

연구방향

- ▶ 문학, 미술, 음악, 영화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소통과 융합을 촉진하는 21세기형 미적 교육과 탈경계 문화예술교육의 전략과 실천 모델 제시.
- ▶ 예술과 기술(technology), 공동체, 생태(ecology)의 활발한 소통과 상호작용을 촉발, 촉진하는 미래지향적 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 제시.
- ▶ 융합적 작품 창작 및 예술 실천, 학과-전공 간 교류, 창작과 감상(비평)의 대화를 고무, 촉진하는 대학 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 제시.
- ▶ 연구, 교육, 창작의 경계 횡단(boundary crossing)을 통한 '새로운 인문예술 장르-영역'의 개발과 새로운 예술가, 예술 매개자 모델 제안.

4 1+3 문화예술통합교육이란?

연구방향

▶ 실현 가능한 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 제공

- 예술 각 분야 전문 연구자들의 협력을 통해 문학, 미술, 음악, 영화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소통과 융합을 촉진하는 21세기형 미적 교육과 탈경계 문화예술 교육의 방향, 전략, 실천 모델 제시.
- 예술 연구자와 예술 외부의 철학,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인지공학, 기술분야 관련 전문가들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 예술과 기술, 공동체, 생태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의제 및 관점 제시.
- 장르 확장과 혼합의 가능성, 지각, 인지 능력의 확대를 도모하는 현실적, 실천적 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 제안.
- 융합적 작품 창작 및 예술 실천, 학과-전공 간 교류, 창작과 감상(비평)의 대화를 고무, 촉진하는 대학 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 제시.

4 1+3 문화예술통합교육이란?

연구방향

▶ 학습자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실습 프로그램으로 확산

- 예술 장르의 통합, 예술과 (과학)기술의 결합, 새로운 합성적 표현 형식을 중시하는 예술의 혼종화 현상에 대응하는 탄력 있는 예술가 교육 모델 제시.
- 연구, 교육, 창작의 경계 횡단을 통한 '새로운 인문예술 장르-영역'의 개발과 새로운 예술가, 예술 매개자 모델 제안.
 - 4차 산업혁명 시대 타 장르, 타 매체, 타인과 만나는 체험 제고를 통한 예술의 사회성, 윤리성, 공공성 제고.
 - 국내/해외 예술대학 및 미술관, 아트센터, 박물관 등 예술통합적 현장에 대한 체험 및 조사를 통한 사례연구를 통해 교육과정 제시.
- ▶ 작품 창작을 포함해 예술 실천의 수준에서 예술과 기술의 실질적인 연결 가능성을 고무, 촉진하는 예술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 ▶ 현 예술대학, 교양대학 내에서 문학, 미술, 음악, 영화 등 4개 분야의 통합적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법을 개발, 활용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전략 마련.

4 1+3 문화예술통합교육이란?

단계별 연구 의제와 추진 전략

1단계

개별 예술 분야의 1+3 통합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법 개발과 운영

- ▶ 문학, 미술, 음악, 영화 등 개별 예술 분야 및 장르 통합교육의 방향과 방법 연구.
- ▶ 한 분야를 순차적으로 선택해 나머지 3개 분야와의 통합 교육과정 (1+3) 개발 추진
→ 문학 주도형, 미술 주도형, 음악 주도형, 영화 주도형.
- ▶ 1단계 기간 중,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전공기초 2과목의 개설과 운영을 통한 연구성과 검증 및 심화
→ 타 대학 및 관련 기관과의 연구 및 강의교류를 통한 연구 성과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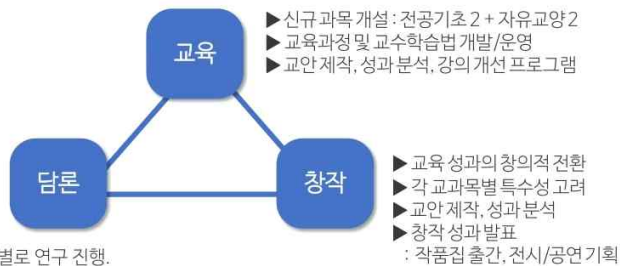
2단계

예술과 기술, 공동체, 생태 간 1+3 통합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법 개발과 운영

- ▶ 기술, 공동체, 생태 등 예술계 외부의 영역들과 예술을 연결하는 1+3 통합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법 개발, 운영 추진.
- ▶ 기술미학, 예술사회학, 생태학 분야의 연구 성과들과 예술대학 교육과정의 연결, 결합 가능성, 현장에서의 예술과 기술의 실질적인 연결 가능성을 촉진하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 ▶ 예술과 공동체, 생태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법 개발을 통해 예술의 윤리성, 사회성, 공공성 제고.
- ▶ 2단계 기간 중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통합교양 2과목의 개설과 운영을 통한 연구성과 검증 및 심화.

4 1+3 문화예술통합교육이란?

연구의 갈래



- ▶ 단계별 연구 의제에 따른 세부 주제별로 연구 진행.

1단계 개별 예술 분야/장르 통합교육의 방향과 방법

2단계 기술, 공동체, 생태와 예술을 연결하는 예술 통합교육의 실천과 전망

4 1+3 문화예술통합교육이란?

연구 방법

세미나, 특강, 학술대회, 논문발표

- ▶세미나 : '예술통합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주제로 공개 세미나 월 1회 진행.
- ▶특강 및 자문회의 : 연구심화와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매년 2회) 및 자문회의(매년 1회).
- ▶학술대회 : 매년 3회(국내 2회, 국제 1회)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연구성과 교류와 확산(1단계 1년차 국내 1회, 국제 1회).
- ▶논문발표 : 세미나, 학술대회 발표를 심화, 완성한 논문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 발표(1단계 7편, 2단계 8편).

사례조사와 연구서 발간

- ▶국내/해외 예술대학 및 관련기관 예술통합교육 현황 조사 → 자료집 발간(1단계 1권, 2단계 1권).
- ▶연구성과를 집약한 단행본 연구서 발간(1단계 2권, 2단계 4권).
- ▶예술통합교육의 교과과정 및 교수학습법 개발을 위한 워크숍.
- ▶예술통합 교과과정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예술대학 강사, 학생 대상 기술지원 워크숍 운영.
- ▶예술가를 위한 유튜브 콘텐츠 제작 워크숍(1단계), 예술가를 위한 그림책 또는 웹툰 제작 실무 워크숍(2단계) 개발 운영.

창작 결과물 생산 : 작품집(출판물), 전시(기획), 공연(기획)

- ▶강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또는 소집단 협업을 통해 작품집, 전시(기획), 공연(기획) 등 창작 결과물 산출.
- ▶수업 창작 결과물을 중강 이후 출판, 전시, 공연의 형태로 발표 → e-book, 온라인 가상전시 및 공연, 유튜브 콘텐츠 등 다양한 매체의 적극 활용.

4 1+3 문화예술통합교육이란?

연구 예시 1. 미술주도형



류재수, 〈노란 우산〉, 보림출판사, 2007.

4 1+3 문화예술통합교육이란?

연구 예시 2. 음악주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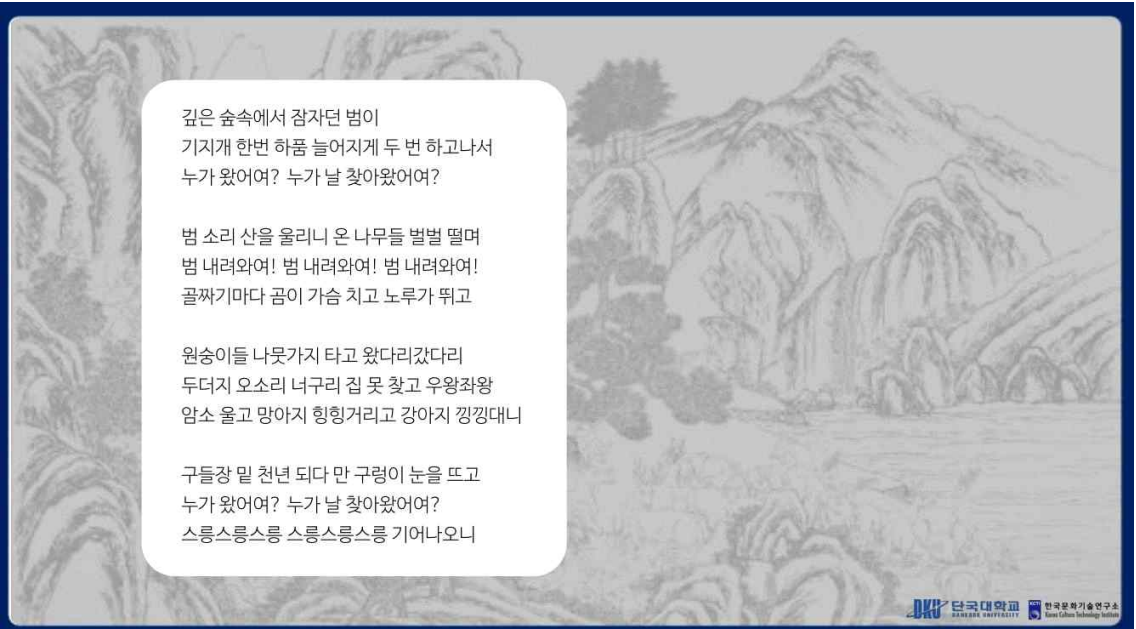
이날치, '범 내려 온다'

뱀 올라가여

박덕규

자라한테 업혀서
용왕님 만나고 온 토끼가
산중에 꼭꼭 숨어 버린 뒤

거북 문어 해삼 갈치 황새치
떼 지어 몰려와 토끼 찾는다고
온 동네 쫓시고 다니며 비린내 풍겨대니



깊은 숲속에서 잠자던 범이
기지개 한번 하품 늘어지게 두 번 하고나서
누가 왔어? 누가 날 찾아왔어?

범 소리 산을 울리니 온 나무들 벌벌 떨며
범 내려와여! 범 내려와여! 범 내려와여!
골짜기마다 꿈이 가슴 치고 노루가 뛰고

원숭이들 나뭇가지 타고 왔다리갔다리
두더지 오소리 너구리 집 못 찾고 우왕좌왕
암소 울고 망아지 헉헉거리고 강아지 강강대니

구들장 밑 천년 되다 만 구렁이 눈을 뜨고
누가 왔어? 누가 날 찾아왔어?
스름스름스름 스름스름스름 기어나오니

뱀 올라가여! 뱀 올라가여! 뱀 올라가여!
지렁이 땅강아지 쇠똥구리 소리 지르고
여치 메뚜기 날다람쥐 뱀 아이라여, 뱀이라여!

범 아이라여, 뱀 올라가여! 그 누가 맞서고
뱀 아이라여, 범 내려와여! 그 누가 맞서니
거북 문어 해삼 갈치 황새치 어리둥절 갈팡질팡

뱀 올라와여! 뱀 올라와여! 아이라여!
범 내려와여! 범 내려와여! 아이라여!
뱀 올라와여! 범 내려와여! 뱀 올라와여!

뱀 올라와여! 뱀 올라와여! 아이라여!
범 내려와여! 범 내려와여! 아이라여!
뱀 올라와여! 범 내려와여! 뱀 올라와여!

SESSION 3.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

김인혜(국립현대미술관 근대미술팀장)

예술의 세 가지 세계

양구(梁玖, 베이징사범대학교, 중국)

번역 : 김설매(단국대)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

김인혜

(국립현대미술관 근대미술팀장)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전이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올해 2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되었다. 전시를 기획한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 전시는 ‘예상외의’ 인기를 누렸다. 코로나-19로 인해 관람 인원을 시간당 100명으로 제한했는데, 매시간 예약은 꼭 찼고, 현장 접수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인해 미술관 입구는 연일 붐볐다.

전시 내용이 결코 쉽지 않았고, 전시에서 다룬 문학과 미술가의 숫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관객들이 관람에 어려움을 토로하면 어쩌나 계속 걱정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막상 전시를 열고 나니,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모르는 내용도 재미있으면 본인의 방식대로 ‘즐긴다’는 것을.

이 전시를 열고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두 가지이다. ‘왜’ 이와 같은 주제의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전시를 준비할 수 있었는지. 일단, 이 전시가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는 이미 미술관 홈페이지 전시 소개에서부터 브로슈어나 전시장 텍스트에 충분히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앞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집중해서 답해 보고자 한다. (전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http://mmca.go.kr> 또는 도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왜?’라는 질문은 늘 중요하다. 미술과 문학의 관계를 왜 조명해야 하는가? 사실 이 주제는 한국 근대미술 연구의 핵심 키워드로, 앞서 많은 연구자들이 논문을 내놓았던 분야이다. 미술사가뿐 아니라 문학사가들도 이 주제에 대해 다양한 책과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필자가 기본적으로 이 주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한국 근대미술사 서술의 빈약성’에 대한 반성 때문이다.

우리가 근대미술사를 얘기할 때, 주로 작가 중심으로, 양식 중심으로, 장르 중심으로 작품을 분류하고 해석하다 보면, 의외로 가장 놓치는 질문은 ‘왜’이다.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어떤 ‘생각’이 화가로 하여금 이러한 작품을 그리도록 인도하였는지? 근대의 화가들이 전통 중인계층의 장인들과는 달리, 일정한 규범에 맞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유와 내적 욕구 속에서 작업을 했다고 한다면, 그들을 충동하게 했던 정신적 원천은 무엇인가? 말하자면, 근대미술 ‘사상사’에 대한 질문이다.

그런데 이 ‘정신’의 탐구는 미술가들과 어울렸던 문학가들의 ‘텍스트’에서 오히려 더욱 극명하고 생생하게, 그리고 실증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김용준이 서양화를 그리다가 한국화로 전향하게 된 이유를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설가 이태준의 텍스트를 읽게 되는 식이다. 이태준과 김용준은 일제강점기 치욕의 시대에 중국도 일본도 아닌, ‘조선’ 고유의 전통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이를 현대화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러한 노

력이 김용준에게는 그림으로, 이태준에게는 평론과 수필로 증명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시대의 맥락을 이해하고, 미술과 동행했던 다른 분야를 함께 들여다보고, 당시의 예술가들이 실제로 그랬던 것처럼 분야 간의 상호 ‘교류’와 ‘융합’을 드러내 보일 때, 우리는 한국 근대미술을 훨씬 더 매력적인 것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화단은 빈약하고, 미술관도 없고, 미술시장도 거의 전무(全無)한 상황 속에서, 예술가들은 고군분투하며 자신의 역량을 불태웠는데, ‘편식’한 서양미술사가의 눈으로 본다면 작품들은 형편없고 아류작 같다. 남아 있는 작품도 별로 없고, 그래서 더 할 얘기도 없다.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시각 속에 갇혀 있는 한 한국 근대미술 서술의 지평은 너무나도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양식적으로 덜 세련되고 서툴지라도, 예술가들이 그 격동의 시대를 관통하며, 자신의 사상을 키워나갔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지점이다.

어느 젊은 예술가가 필자와 한국 근대미술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는 우리의 근대미술에 대해 왜 이렇게 모르는가?”, “우리는 한복을 입다가 왜 갑자기 청바지를 입게 된 것인가?” 하고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 설마 한복을 입다가 바로 청바지를 입게 되었을 리가 있겠는가.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 ‘격동적’이었던 근대 시기의 문화와 예술을 다채로운 시각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우리를 알기 위해서 말이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이런 전시를 준비했는가 하는 것이다. 전시 준비를 얼마나 오래했는가 하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다. 사실 미술관의 학예연구직 한 사람이 특정 전시의 내용을 모두 감당하고 파악하고 연구해서 어떤 전시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국립’ 미술관과 같은 곳에서 하는 전시는 한 ‘개인’의 역량을 보여주는 전시가 아니라 한 ‘국가’의 지적 수준을 집결시킨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래서 이 전시는 실로 많은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가능했다. 그 중 세 분의 역할과 협업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 간단히 기록해 두고 싶다.

근대서지연구소의 오영식 소장은 40년 이상 근대서지를 연구하고 수집한 분이다. 이분이 소장하고 있는, 혹은 이분을 통해 대여한 많은 책과 잡지가 이번 전시에 출품되었다. 이미 오래전, 전시를 하게 될지 아닐지도 결정되지 않았을 때부터, 미술관의 아카이브 연구센터에서는 오영식 소장 자료를 스캔하고 기술(記述)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 작업 자체도 오영식 소장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이러한 기초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전시가 확정되었을 때 후속 작업이 훨씬 더 수월했다. 미술관은 ‘전시’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기관은 결코 아니다. 어떻게 활용될지는 모르더라도 언제나 연구를 위한 기본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광운대학교 조영복 교수는 문학평론가로서, 이번 전시의 문학 부문 기획자이다. 1년 가까이 필자와 조영복 교수는 매달 한 번 만나서 온갖 대화를 나누었다. 이분이 쌓아놓은 ‘화문(畵文)’ 목록은 특히나 놀라운 것이었다. 근대기에 많은 시, 에세이, 기행 산문 등은 처음 발표된 때 ‘그림’과 함께 실렸다. 그러한 ‘화문’이 언제 어느 잡지나 신문에 실렸는지 일차적인 목록 작업을 모두 해 놓으셨다. 물론, 이 집지들의 원본을 찾아 촬영하고 데이터를 생산하고 보정하고 배열하는 고단한 작업은 모두 미술관의 스태프들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말이다. 조영복 교수는 전시의 방향을 결정하고 개념을 구분하고 용어를 정리하는, 이른바 ‘기획’ 작업도 멋지게 수행해 주셨다.

마지막으로 경기대학교 공성수 교수는 이번 전시에서 신문소설 삽화 부분에 대해 탁월한 기여를 해 주셨다. 현대문학 연구자로서 ‘신문소설 삽화’에 천착해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책

도 출간한 분이다. 신문소설은 일제강점기 그 무엇보다 강력했던 매체로, 오늘날 드라마나 웹툰 같은 어떠한 타매체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파워 미디어’였다. 신문소설을 누가 쓰느냐가 신문 부수를 결정했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 신문소설의 ‘삽화’를 1900년대에 태어난 많은 화가들이 열정적으로 그리고 있었다. 이 세대 화가들에게는 그들의 역량을 몰두할 만한 다른 수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신문소설 삽화를 그리는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발산하는 기회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 안석주, 이상범, 노수현, 이승만, 김규택, 정현웅을 비롯해 12명의 화가, 약 400여 컷의 신문삽화가 선별되어 전시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섹션이 대중적으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수많은 삽화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삽화를 결정할지, 소설별로 배열할지 삽화가별로 배열할지, 텍스트와 삽화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신문소설 삽화에 대해 전시장에서 얼마만큼의 물리적 공간을 할애할지... 등 모든 문제들은 공성수 교수와의 대화를 통해 점점 더 명료해졌다.

이외에도 미술관 밖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전시의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또한 미술관 내부에서, 코디네이터, 아키비스트, 공간디자이너, 그래픽디자이너, 전시장 조성 인력, 에듀케이터, 홍보 전문가 등 많은 전문 인력들의 협업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점차 직군별 분화와 전문성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하나의 전시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스케줄을 관리하고... 무엇보다 야근을 부르는 이 많은 일들을 공들여 할 필요성에 대해 ‘확신’을 심어주는 일은 큐레이터의 몫이다.

그러나 전시의 진정한 완성은 관객이다. 이번 전시에는 놀랍게도 20-30대의 젊은 연령층이 첫날부터 전시장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미술 작품을 그저 ‘보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삽화를 넘겨 글을 읽고, 시낭송을 듣고, 워크지에다 실제로 시를 쓰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를 즐겼다. 이 장면은 인상적일 뿐 아니라, 전시를 준비한 입장에서 볼 때 감동적이기까지 했다. 일제강점기 치욕의 시대, 뚝뚝한 젊은이들이 일자리도 없이 ‘룸펜’ 생활을 하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 고양된 생활을 누리지 않았던가. 이번 전시에 등장하는 예술가들 말이다. 바로 그들처럼, 이 시대 청년들도 결코 희망에 가득 찬 환경에 놓여 있지는 않다. 이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것일까. 한국 근대기를 살아내었던 우리 선조들에게서 무언가 배울 것이 있으리라는 것을.

※ 이 글은 한국박물관협회의 온라인 기관지에 발표한 원고를 일부 수정하여 재수록한 것임.

질의문

홍지석

(한국문화기술연구소)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展(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2021.2.4.~2021.5.30)는 올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가장 흥미로운 전시입니다.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展은 미술뿐만 아니라 문학을 전시로 가져와 문학과 미술의 긴밀한 연계 하에 진행된 한국현대미술의 양상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깊이있게 관찰할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미술관 전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의미있는 실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전시를 기획하신 김인혜 선생님의 흥미로운 발표문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추려 보았습니다.

첫째는 “미술관에서 ‘문학’을 어떻게 전시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학작품과 문학의 매체들은 미술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각적 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학작품과 문학 매체들을 전시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부상한 문제들과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대안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둘째는 1950년대 이후 미술과 문학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1950년대까지 활발히 이어지던 신문과 잡지, 전시 등을 통한 문학과 미술의 교류가 1960년대 이후 침체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화문’이라는 아름다운 장르의 전성기는 그토록 빨리 저물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동시대 문학과 미술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미술과 문학은 다시 어떻게 교류하면서 가치있는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술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展과 같은 유형의 전시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입니다. 다시 한번 미술과 문학, 또는 문학과 음악, 음악과 영화, 미술의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한다면 어떤 주제를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艺术“三术”之约的世界

양구

(梁玖, 베이징사범대학교, 중국)

艺术“三术”之约的世界



梁玖 [中国]

北京师范大学艺术与传媒学院
二〇二一年十二月十五日·韩国·第20届国际
学术研讨会

尊敬的大会主席：

尊敬的各位同道、各位先生们、女士们：

下午好！

首先，感谢韩国文化技术研究院院长朴득규先生的邀请，预祝韩国文化研究院“第20届国际学术研讨会”取得圆满成功。

同时，感谢来自韩国曾跟随我学习的（老学弟）——洪玄朱女士的热心推荐，我们师生在北京共同度过的学术岁月，是令人难忘的、美好的，感谢她为发展中韩友谊做出的积极贡献。

在新冠疫情蔓延世界的当下危艰的时候，韩国文化研究院还坚持推进举行《触摸艺术：艺术与技术共同发展进化》的国际学术研讨会，着实令人敬佩，深受鼓舞，相信来自世界各地的同行与我有相同的感受和心情。

汇报主题——《艺术“三术”之约的世界》

通过本论题试图发表一个观点——艺术是
“关系拥抱”而生的人类灵魂世界。



梁玖

博士、出站博士后

书画者、作者

教授

博导

中国美术家协会会员

北京美术家协会美术教育委员会副主任

中国美术馆公共教育专家委员会委员

中国艺术学理论学会常务理事

中国艺术学理论学会艺术教育专委会副会长

中国艺术学科研究生教育联盟执行主席

构思了：

审艺学

“外化悲欣情趣”艺术创作论

“心划情体”书法创作观

润泽艺术教育思想

泽园教育模式

艺理学概念

族群社会艺术学

艺术教育社会学

《艺术“三术”之约的世界》

本论题的提出是基于对关于艺术的三个命题的思考——

民众有身心恐怖之感吗？
艺术需要先进吗？
我们现在的艺术能给予人类新思想？

基本立足点是针对艺术应然世界和当下的艺术现实世界而讨论

总之，我的汇报是期望通过“关系拥抱”这个视点，来讨论和尝试回答本次大会的主题——为什么要“触摸艺术”，以及怎么触摸艺术的问题？

之约的世界

一、关系存在中的艺术“三术”

shù

術

抛开哲学来说，艺术家可能是孤独的，但艺术一定不是孤立的。

我们彼此生活的世界是由复数结构起来的美妙世界。

我们各自的艺术世界，也是由自身的复数组织成的多彩绝妙形式世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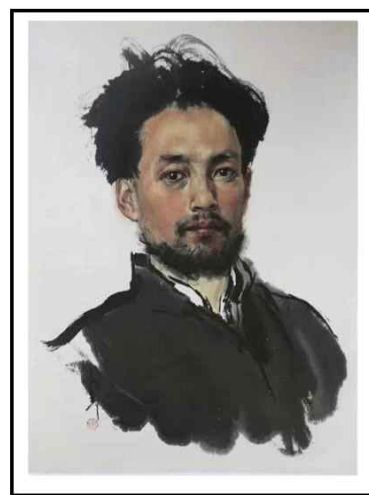
艺术“三术”=艺之术+技之术+学之术

术=汉语中，名词+动词

名词中，术(shù)
除了表明“草本植物=术(zhú)”外，主要有——路、方法、策略、计谋、行业技术、法律、学说、方术，等内涵。
作为动词的“术”，主要指是学习、述、选择职业。

艺之术=创生力——艺术是**没有之有**的心醉物=生产
 技之术=科学力——方法之工=**新考工记**=技艺
 学之术=研究力——揭示**艺术存在**的学说=思想

总之，主张以“创生力+科学力+研究力”
 来“触摸艺术”、来推进艺术的共同发展进化。



《自画像》，69×46厘米王子武（1936-2021、12、09）

二、执着守候艺术“三术”生成新的艺术世界

艺术“三术”，揭示了艺术自身构成的关系和关系因素。同时，也说明了艺术是因为有“关系拥抱”才能够产生、才能够有精神的温情、才能在不断的被需要中发展。

艺术=悲欣形式

“关系拥抱”，于**艺术外部**来说，就是发现和运用互生力量，形成创造新艺术的条件力量，包括如何认识和运用人与艺术、物与艺术、科学与艺术、历史与艺术、社会与艺术、异化与艺术、未来与艺术，等等关系。

“关系拥抱”，于**艺术内部**来说，就是将“创生力+科学力+研究力”这“三力”运用好，让各个力量尽其所能，共同汇集起创造新艺术的生命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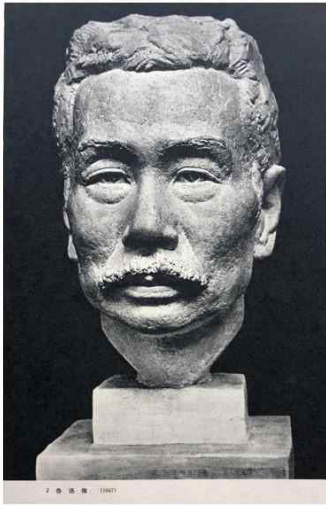
艺之术+技之术+学之术

艺术是“关系拥抱”之子

艺术是一种“关系拥抱”方式、意识、思维、行为的结果。



《喜神》（纸马版）
河北内丘



《鲁迅像》，雕塑

刘开渠 吴为山
中国美术馆馆长



1. 艺术不是天生的

这是实现“触摸艺术”的基本认识论和触摸的前提

其一，将其作为发挥“**艺之术·创生力**”的重要的观念与行为规格

“这狮子长得不对啊”



《汉白玉狮子》，中国盛唐

其二，不断谋求**开发艺术家个人**的所有的情感、智慧来生成有艺术代沟的新艺术

艺术代沟=艺术“变化”的实在事件

只有充分的认识到“艺术不是天生的存在”，并用好艺术的“创造力”这一个“术”，才有可能确保真正“触摸艺术”。



“草间弥生和她的波点艺术”



《秦代彩绘带盖陶壶》呼和浩特市和林格尔县土城子出土，内蒙古文物考古所藏

2. 艺术是考工之物

这是实现“触摸艺术”的基本实践论和触摸的手段。

艺术是人工之物

“技之学·科学力”

艺术是意义欲望的情趣形式，就是把“某是”变为“某式”

在关照当代科学技术发展的过程当中，
寻求到创造新艺术的“新方法之工”

当代艺术的“新考工记”

《考工记》中国春秋战国时期(公元前770年~公元前221年)，记述官营手工业各工种规范和制造工艺的著作。

考工记

万州桥

万州桥位于天生桥上面约百余米处。系单孔横跨芒溪河的石砌拱桥，长十丈，宽二丈八尺，高五丈八尺。建于清同治九年(1870年)。

波日桥

始建于清朝，由杰出的藏族建筑大师唐通吉布承担设计



无论在什么时候“触摸艺术”，尤其在当代艺术发展中，或者说在未来艺术中，“表现手段”与“工艺方法”，始终是新艺术产生依赖的“工具物”。

往往艺术代沟的形成，就与新技术的运用密切相关

总之，“触摸艺术”的手一只是心灵、一只工物（业术），只有当这两只手相握交运的时候，才能真正迸发出人类绝妙的悲欣情趣形式文化的杰作。

中国内蒙古鄂尔多斯市鄂托克旗巴彦淖尔乡汉墓壁画



意大利画家卢西亚诺·文特罗内 (Luciano Ventrone • 1942-)

梁致《小写松鼠》，2019年



3. 艺术是“关系拥抱”而生的人类灵魂世界

这是回答为什么要“触摸艺术”和实现“触摸艺术”的基本思想和触摸的取向。

学之术·研究力”

“关系拥抱”=找到彼此的互生方式和力量

“触摸艺术”或促进艺术的发展离不开“学之术·研究力”，这也是因为艺术本身就是一种创生行业知识的学术活动。

是着力于全面关怀**艺术存在**，揭示艺术存在的独特内涵，生成不可替代的**艺术思想**，形成专属的**艺术知识体系**，形成各有风格和魅力的**艺术世界**，这不仅是各个民族、各个国家创造属于自己艺术的必由之路，也是东西方艺术互相促进和发展的必由之路，更是在当代语境下努力创造人类艺术文化共同体的必由之路，真正让艺术在“关系拥抱”中产生人类的**灵魂世界**，从而让人类在艺术的安稳中，安宁的生存和幸福的生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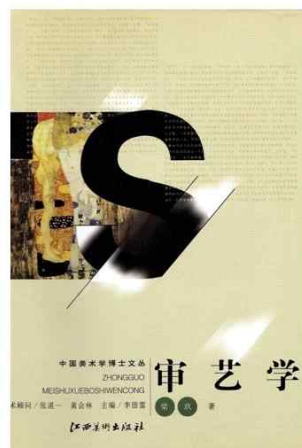


梁玖《花开时回家吃饭》，2020年

总之，只有当发挥出了艺术的“学之术·研究力”，才会让“触摸艺术”的“心灵之手”和“工物（业）之手”，能够**温情**交接，并创生出**与时代相生**的艺术杰作。



《家族徽章设计》，帮主·孙变慧，2021年



梁玖 著《审艺学》，2008年

《艺术“三术”之约的世界》

只有当“艺术‘三术’”热情约会的时候，艺术之爱才会产生，艺术世界才会美妙绝伦，艺术才会被人类永恒的钟爱而更有不可替代的魅力，人类的灵魂世界才会真正的飞翔。

艺之术·创生力
技之术·科学力
学之术·研究力



《一蓑烟雨任平生》——郭懿辉，2021



梁秋《京剧人物》速写，2019年

结论

- 一、艺术总是有自己的尺度
- 二、艺术“三术”是“触摸艺术”的必要策略与方法
- 三、艺术是“关系拥抱”之子



《远方有多远》，中国写意花鸟画，梁玖，2016年

谢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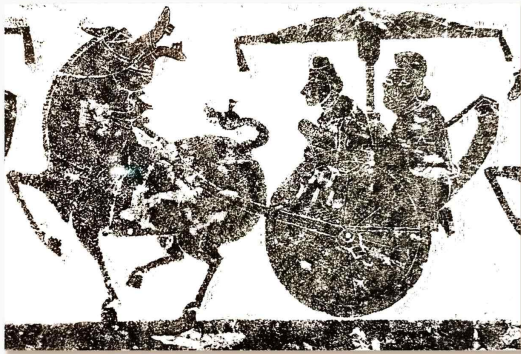
13520058721
meiyoulai@126.com

예술의 세 가지 세계

양구

(梁玖, 베이징사범대학교, 중국)

번역 : 김설매(단국대)



한국문화연구소 제20회 국제학술회의

세 가지 예술의 세계

양 구 [중국]

북경사범대학교
예술·매스미디어 학과



양 구

박사, 박사 후 과정 시작

서화가, 작가

교수

박사과정 지도 교수

중국미술학회 회원

베이징 미술가협회미술교육위원회 부주임

중국미술관 공공교육전문가위원회 회원

중국예술학이론학회 상무이사

중국예술학이론학회 예술교육전문가위원회 부회장

중국예술학과대학원생교육연맹 집행위원장

구상

심미학(예술을 심사·감상 하는 학문)

‘외적으로는 슬픔, 기쁨, 재미를 표현’ 하는 예술창작론

‘내적으로는 정신세계를 그려내는’ 서예창작관점

루운저(潤澤) 예술교육사상

저위안(澤園) 교육모델

예리학개념

민족사회예술학

예술교육사회학

존경하는 대회 좌장님, 존경하는 동료, 신사 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박덕규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소장의 초청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한국문화연구소 ‘제 20회 국제학술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한국을 떠나 저와 함께 연구를 해왔던 (후배인) 홍현주 여사의 적극적인 추천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사제간은 베이징에서 아름답고 잊지 못할 학술연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홍여사가 한중의 돈독한 우정을 위한 노력도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세계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한국문화연구소가 <접촉하는 예술들 : 예술과 기술의 공진화(共進化)> 주제의 학술세미나를 적극적으로 추진·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존경스럽고 격려드립니다.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신 동료들은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예술의 세계>

: 예술은 '관계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인류 영혼(정신)의 세계라는 관점을 전하고자 한다.

세 가지 명제

- ▶ 대중들은 두려움을 느끼는가?
- ▶ 예술은 발전시켜야 하는가?
- ▶ 현대미술은 새로운 사상을 보여주는가?

기본 **입각점**은 바라는 예술세계와 실제 예술세계에 관한 토론이다.
'관계의 융합'이라는 시각으로 이번 세미나의 주제인 '접촉하는 예술들'의 필요성과
예술을 접하는 방법을 토론하고 관련질문에 대해 답하려고 한다.

一、관계 속의 세 가지 예술

세 가지 예술 = 예술 + 기술 + 학술

術

Shù 術 术 : 중국어에서, 명사+동사

명사로써의 術술 (shù술)은 '초본식물=术(zhú 출)'을 의미하는 외에도
주로 '길, 방법, 책략, 계략, 업종기술, 법, 학설, 술수' 등을 의미한다.
동사로써의 '술'은 주로 '학습하다, 진술하다, 직업을 선택하다'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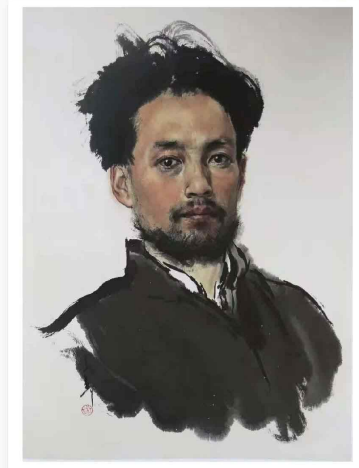
- ▶ 철학은 차치하고 예술가는 외로울 수 있으나 예술은 외로운 길이 아니다.
- ▶ 세상은 복수 즉 **여럿**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세계다.
- ▶ 모든 예술의 세계도 여럿으로 이루어진 조직이고 다양성을 갖춘 아름다운 세상이다.

예술 창조 - 예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 생산

기술 과학 - 방법 = 新 새로운 융합기술 = 재주

학술 연구 - 예술의 존재를 나타내는 학설 = 사상

‘창조+과학+연구’를 통해 예술을 접하고
예술과의 **공진화(共進化)**를 추진한다.



《자화상》, 왕 즈우 王子武 (1936-2021, 12, 09)

二、세 가지 예술로 새로운 예술의 세계를 펼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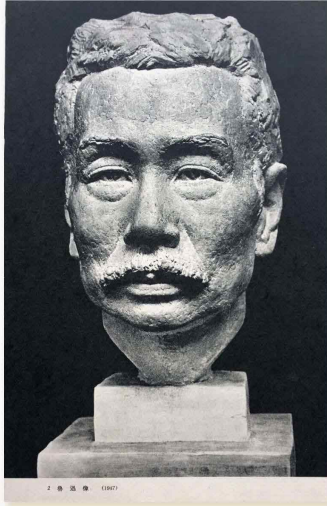


《희신》

- ▶ 세가지 예술은 예술을 구성한 관계와 관련 요소를 보여준다.
또한 예술이 ‘관계의 융합’에서 비롯되고 따라서 온기를 나눌 수 있으며
필요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 ▶ ‘관계의 융합’을 외적인 예술로 보면 상생의 역량을 발견·활용하는 것이고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는 역량을 모으는 것이다.
그 중 사람과 예술, 사물과 예술, 과학과 예술, 역사와 예술, 사회와 예술,
변화와 예술, 미래와 예술 등의 관계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 ▶ ‘관계의 융합’을 내적인 예술로 보면 ‘창조+과학+연구’ 세 가지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여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는 생명력을 모으는 것이다.

예술은 방식, 의식, 사고, 행위로 인한 결과에서 비롯된다.

예술 = 슬픔과 기쁨의 형식



《루쉰 조각상》, 조각
류우 카이취이(刘开渠)
우 위이산(吴为山)
중국미술관 관장



1. 예술은 타고난 것이 아니다.

- ▶ 이는 예술을 접하는 기본인식이론이자 전제이다.
- ▶ ‘예술은 타고난 것이 아니다’를 깨닫고 창의력을 발휘해야 진정한 예술을 접할 수 있다.
 첫 번째, 이를 **예술의 창조성**을 발휘하는 중요한 이념과 행동기준으로 삼다.
 두 번째, 예술가의 감정, 지혜를 계속 모색하여
 남다르고 세대 차가 드러나는 새로운 예술을 창조한다.
- ▶ 예술의 세대 차 = 예술 ‘변화’의 현실
- ▶ 다른 모습의 사자

쿠사마 야요이(草間彌生) 설치미술



《중국 전한시기 투쟁 달린 채색 도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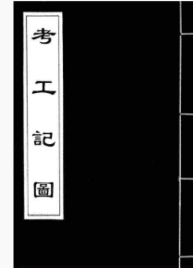
《한(漢)백옥사자》, 당나라



2. 예술은 기술이 필요하다.

기술 + 과학

- ▶ 이는 예술을 접하는 기본실천이론이고 접하는 방법이다.
- ▶ 예술은 인간의 창조물이다.
- ▶ 예술은 의미와 욕망을 재미로 표현하는 것이고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 ▶ 현대 과학기술발전의 과정에서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는 새로운 기술을 찾았다.
- ▶ 현대 예술에 활용되는 '새로운 기술'.



《기술기록서》는 중국 춘추전국시(기원전 770년~기원전 221년)에 관영 수공업 분야의 여러 업종규범과 제조기술을 기록한 서적이다.

2. 예술은 기술이 필요하다.



부어르 교 (波日桥)
중국 청나라 건축, 걸출한 티베트 족 건축가인
탕 투옹지이부우가 설계함.



완저우 교 (萬州桥)
완저우 교는 티안생교 약 200m 상류에 위치한다.
단순한 아치형 구조로 주시강 을 가로지른 석재 아치교다.
길이 약 33m, 너비 약 9m, 높이 약 19m. 청나라 동치 9년(1870년)에 건축.

- ▶ 언제 예술을 접하든 특히 현대 예술의 발전과정과 미래예술에서 ‘표현하는 방법’, ‘공예방법’은 항상 새로운 예술이 의지하는 도구다.
- ▶ 예술의 세대 차는 새로운 기술의 활용과 긴밀히 연결된다.
- ▶ 결국, 마음의 손과 기술의 손으로 예술을 접하고 두 손을 마주 잡고 호흡이 맞으면 기쁨, 슬픔, 재미가 녹아 든 멋진 작품이 완성된다.



양 구, 《다람쥐(松鼠)》, 2019년.



루치아노 벤트론 이탈리아 화가 (Luciano Ventrone, 1942-)



3. 예술은 ‘관계의 융합’ 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정신세계다.

- ▶ 이는 예술을 접해야 하는 이유와 예술을 실천하는 기본사상과 접하는 방법이다.
- ▶ ‘관계의 융합’ = 상생방법과 역량을 찾는 것이다.
- ▶ 예술을 접하거나 예술의 빠른 발전에는 ‘학술+연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예술 그 자체가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는 학술활동이기 때문이다.
- ▶ 예술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관찰하고 그 특별한 의미를 드러내서 대체할 수 없는 예술의 사상을 이루며 전문적인 예술지식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남다른 매력을 갖춘 예술의 세계를 창조한다. 이는 모든 민족과 국가가 자신만의 예술을 창조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고, 동서양 예술이 서로 발전을 촉진할 때 반드시 지나야 할 길이며, 현대 언어환경에서 인류예술문화 공동체를 형성할 때 거쳐야 할 길이다. 이를 통하여 예술이 ‘관계의 융합’ 에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창조하고 인류는 평온한 예술세계를 감상하며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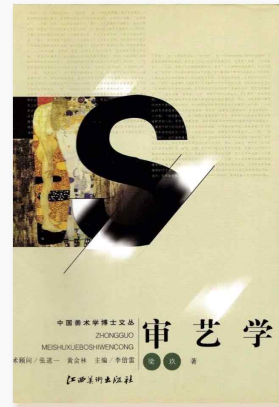


양구, 《꽃 필 무렵 집으로》, 2020년.

결국 예술은 ‘학술과 연구’의 역량을 발휘해야만
예술을 접하는 마음의 손과 기술의 손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맞잡을 수 있게 되고
시대와 어울리는 예술의 걸작을 창조할 수 있다.



《가족 휘강 디자인설》, 책임자-쑨원후어이孙雯慧, 2021년.



양구 저, 《심예학(审艺学)》, 2008년.

예술 • 창조

기술 • 과학

학술 • 연구

<세 가지 예술의 세계>

세 가지 예술 즉 예술, 기술, 학술이 하나가 되었을 때
예술의 사랑이 싹트게 되고, 예술의 세계가 아름다워지며,
예술이 영원히 사랑을 받게 되고,
대체할 수 없는 매력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인류의 정신세계가 자유로워진다.



구어 이후이, 《비를 맞으며》, 2021.

결론



양구, 《중국 경극 인물》 스케치, 2019년.

- 一、예술은 항상 자기만의 기준이 존재한다.
- 二、세 가지 예술 즉 예술, 기술, 학술은 예술을 접하는 방법이다.
- 三、예술은 '관계의 융합'에서 비롯된다.



《먼 곳은 얼마나 멀까》, 중국 사의 화조화, 양구, 2016년.

감사합니다.

양구
13520058721
meiyoulai@126.com

질의문

최원재
(단국대)

안녕하세요. 양구 교수님. 저는 단국대학교 음악예술대학 디자인학부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전공 소속 교수 최원재입니다.

어려운 시기 한국문화기술연구소의 국제학술세미나를 통해 교수님께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을 들으며, 예술과 기술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는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공부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전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수님의 발제 초두에 말씀하신 “공진화(共進化)”를 추진할 수 있는 주체는 곧 교육에 그 바탕을 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술을 접하고 예술과의 공진화를 위한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STEAM 교육 (여기서 STEAM은 Science(과학), Technology(기술), Engineering(공학), Arts(인문·예술), Mathematics(수학)의 약자)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STEAM Literacy)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2011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과학 기술분야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스템(STEM)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은 STEM에 A(인문·예술) 요소를 더해 과학기술 교육뿐 아니라 창의성을 기르는 STEAM 교육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STEAM교육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과 중국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다시 교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대학교육에서는 실무중심, 전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예술분야 자체의 통섭과 교류는 예전과 비하여 교류가 협소해지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에서 음악, 미술, 문예창작 등이 함께 통섭하고 교류하는 중국의 사례가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제학술세미나를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였지만, 가까운 시일 교수님을 직접 뵈고 교육과 예술의 영역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동료로서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문

최원재
(단국대)

梁玖教授,您好!

我是檀国大学音乐艺术学院设计系,传媒设计专业的崔原宰。在艰难的时期下,很高兴通过韩国文化艺术研究所的国际学术探讨会向您问好。我今天听了梁教授发表的内容后,我觉得我作为一个艺术和技术方面的学者,需要思考和学习的内容还很多。非常的感谢您为我们提出了这样的愿景。对于您的观点,我有几个疑问想与您探讨。

第一个问题是,您提到了通过“艺术三术”推进艺术的共同发展进化,而我认为实现这一想法的主体就是教育。我认为在不同年龄层都应该为艺术的共同发展计划做出努力与尝试。在这里,我想问您的是,您所提及到的触摸艺术、为实现与艺术共同发展进化的教育部分,应该朝着哪个方向发展呢?

第二个问题是,关于STEAM教育模式的问题。(这里的STEAM是科学,技术,工学,人文艺术,数学的英文首字母缩写)。从2011年开始,韩国积极推进以提高韩国学生对科学技术的兴趣和理解、以科学技术为基础的融合性思考能力(STEAM Literacy)和培养实际操作能力的教育。美国、英国、澳大利亚等国家为了吸引并留住科学技术领域的优秀人才,早已实施(STEM)教育模式。韩国在此(STEM)基础上,增加了A(人文艺术)领域的教学培养内容,旨在实施科学技术教育培养以及创新能力培养的STEAM教育模式。我想了解梁教授是如何看待韩国的STEAM教育的,同时我也想知道在中国是否也有类似的教育模式,如果有,那么在中国是如何推进的呢?

最后一个问题,还是与教育相关的内容。大学是一个反应时代要求的环境,在大学教育中更重视学生们的实际操作能力—实践能力,同时也重视其专业能力。在这样的条件下,各艺术领域之间的融合和交流大不如前。我希望您能给我们讲解一下,中国大学教育中,音乐、美术、文艺创作等专业融合交流的例子,十分感谢您。

虽然,本次国际学术研讨会是以视频会议的方式进行,但我很期待,在不久的将来,能有机会与您见面。我们都置身于教育和艺术领域的研究与学习,是志同道合的人。同时,我也十分期待,能够与您敞开心扉、畅快淋漓地交流探讨。

再一次向您表达我的敬意!

SESSION 4.

그림책이 완성되기까지(IFFTS 프레젠테이션)

팬 형제(Terry Fan & Eric Fan, 그림책 작가, 캐나다)

번역 : 이순영('도서출판 북극곰' 대표)

일본에서 한국문학의 저변 넓히기

김승복('쿠온CUON' 출판사 대표, 일본)

Drawing with the Fan Brothers

: Script for IFFTS Presentation

팬 형제

(Terry Fan & Eric Fan, 그림책 작가, 캐나다)

Terry: Hi everyone, we're the Fan Brothers. My name's Terry.

Eric: And I'm Eric, and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our new picture book
It Fell from the Sky.

Terry: A big thank you to our publisher for inviting us to present our book today,
and to Dankook University for hosting this event. A special thanks to Rury and
Soonyoung.

Eric: We also wanted to say a big hello to all of our readers in Korea. We hope we
can visit Korea some day and say hi to you all in person.

Terry: So we're going to tell you a little bit about how we created the book, and
about our illustration process in general.

Eric: The question we probably get asked more than any other is how we create the
art together, and we hope this presentation helps answer those questions.

Terry: We hope you enjoy this presentation. And so, without further ado, let's get
started.

Terry: Like most of our books, It Fell from the Sky began as a standalone image
that Eric and I did about ten years ago. When we're starting a book, we like to
use an image as a springboard for our imagination. This is the original sketch
we did that inspired the story. As you can see it shows some insects wearing
top hats, surrounding a marble. We always felt like there was the seed of a
good story there.

Eric: As we went through the process of interrogating the image, the story began to
slowly reveal itself. A good image to base a story around is one that seems to
present a series of questions. In this case it was, what do the insects make of
this mysterious object, and how will they react to it? We eventually decided
(slide change) that one of the insects, a spider, would claim the marble as his
own, and so the story became one about greed and ultimately redemption, since

the spider eventually learns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life are what you share with the world, not what you take from it.

Terry: Another inspiration for the story is the fact that Eric and I both collected marbles when we were younger. Here you can see some of the marbles we collected over the years. As our collection grew, we learned that there were many different types of marbles. Some of the ones you see here are more than a hundred years old. The oldest marbles were handmade, and you can identify a handmade marble by the two rough spots on its poles, called pontils. That's where the glassmaker cut the marble from a longer cane of glass. All the various marbles have interesting names, like onion skins, lattice core, Benningtons, and agates, but for our story we chose the most common type of marble, which is the simple cat's eye marble. It's a machine-made marble, and probably the type of marble most of us played with as children. We chose the most ordinary marble because it was the most recognizable, and also because one of the themes of the book is finding the wondrous in the ordinary.

Eric: Every book begins with sketches. Here are some sketches from *It Fell from the Sky*. Sketches are a way of finding your way into the story, and developing the overall look and style of a book. It's the same process for every book we've done. Here are some examples from some of our other books that you might recognize.

First, some sketches from *The Night Gardener*, and here are some early sketches for *Ocean Meets Sky*. Our focus was on the character of Finn and his grandfather, since their relationship is so central to the story. Finally, here are some sketches from *The Antlered Ship*. You can see that a book can change from the initial sketch stage to the finished book. When you're sketching, it's a time to experiment and discover. Early on with *The Antlered Ship* we had originally imagined the foxes as anthropomorphic, but in the final book the foxes were drawn more naturalistically.

Terry: After we've done sketches, the next stage in our process is to create what's called a rough dummy. A rough dummy is essentially the entire book in rough form. A rough dummy gives you an idea of how long the book will be and what the layout of the spreads will look like. It's an important stage for establishing pacing, and for giving you a good guideline for the final book. The rough dummy will usually go through several drafts, but here is our final rough dummy for *It Fell from the Sky*.

Eric: And just as another example, here is the rough dummy we did for our first book, *The Night Gardener*.

Terry: We only begin final art after the rough dummy has been approved by our edi-

tor and art director. Books are a collaborative process, and the editor and art director will also have notes and creative input about the story and the overall design of the book. Eric and I will usually draw the final art in pencil, although recently we've been experimenting with drawing digitally as well. Here are some examples of final pencil art from *It Fell from the Sky*.

Eric: Here's a time-lapse of Terry and I working together on one of those drawings. We'll sometimes work on a drawing together like this, or we'll each work on separate parts of an illustration and then composite them together later. It all goes back to the rough dummy, because that's our blueprint for the finished book and what we both use as a guide so that we're both on the same page. After we finish the drawing, we'll scan it and then bring it into Photoshop. As you can see, we draw the various elements of an illustration separately, and then assemble them together in Photoshop to create the final illustration.

Terry: And here is that process in Photoshop. Once we have all the elements scanned we bring them into Photoshop to assemble the final illustration at the correct dimensions for the book trim. As you can see, we work in layers, so it's a little bit like animation, where you have a background and then various elements are added above the background. Working in layers gives us a lot of flexibility. It allows us to change an illustration, or adjust a specific element to accommodate text. Here's one more example of a spread from *It Fell from the Sky*. Depending on the illustration, we can end up with quite a few layers. For our most complicated scenes we'll occasionally have hundreds of different layers, so it's important to stay quite organized otherwise the files can become unmanageable.

Eric: Here is another example of our process, from *Ocean Meets Sky*. You can see that the process is essentially the same, except in this case we're also adding layers of colour to the image. Any coloring we do is done the same way, using layers beneath the pencil art.

Terry: And that's basically our entire process for making a book, from start to finish. We hope you enjoyed our presentation. We'll leave you with some images from *It Fell from the Sky*, some of our favourite spreads.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listening in, and thanks again to our publisher, Book Good Come, and all our readers in Korea.

그림책이 완성되기까지

: IFFTS 프레젠테이션

팬 형제

(Terry Fan & Eric Fan, 그림책 작가, 캐나다)

번역 : 이순영 ('도서출판 북극곰' 대표)

테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팬 형제로 활동하고 있는 그림책 작가들입니다. 저는 테리고요.

에릭: 저는 에릭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그림책 『하늘에서 보물이 떨어졌어요!』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테리: 먼저 오늘 학술대회에 초대해 주신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서출판 북극곰의 이순영 대표와 이루리 편집장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에릭: 한국에 계신 독자 분들에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언젠가 꼭 한국에 가서 여러분들을 뵙고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테리: 지금부터 『하늘에서 보물이 떨어졌어요!』를 중심으로 저희가 그림책을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가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에릭: 저희 두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하다 보니 어떻게 같이 그림 작업을 하는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에서 답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테리: 재미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테리: 우리가 그동안 만들었던 다른 책들처럼 『하늘에서 보물이 떨어졌어요!』도 어떤 장르의 이미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에릭과 제가 10년 전쯤에 그렸던 그림이죠. 우리는 책 작업을 시작할 때 하나의 이미지에서 출발하곤 해요. 그 이미지를 상상력을 발전시킬 도약판으로 삼는 거죠. 이게 이야기에 영감을 주었던 원본 스케치입니다. 곤충 몇 마리가 상류층이 쓰는 중산모를 쓰고 구슬을 둘러싸고 있어요. 저희는 항상 이 장면이 재미있는 이야기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느꼈어요.

에릭: 이 이미지를 보면서 이런 저런 질문을 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이야기는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야기의 기초가 되는 좋은 이미지가 되려면 여러 가지 질문을 담고 있어야 해요. 이 경우엔 ‘곤충들이 이 신비한 물건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질문이었죠. 우리는 곤충들 중에서 거미가 구슬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하기로 정했어요. 욕심과 그 대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고 말이죠. 결국 거미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은 남들과 공유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지요.

테리: 이 이야기에 영감을 준 게 또 있어요. 에릭과 저는 둘 다 어릴 때 구슬을 모았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모았던 구슬들이에요. 구슬을 많이 모으다 보니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구슬 모양이 모두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죠. 어떤 구슬은 100년이 넘은 것들도 있어요. 이중에 가장 오래된 구슬은 핸드메이드예요. 기둥 부분에 거친 점이 보이죠? 이건 ‘폰틸’이라고 부르는데요. 유리 만드는 사람들이 기다란 막대기 끝에서 구슬을 잘라내는 부분이에요. 다양한 구슬만큼 이름도 다양하고 재미있어요. 양과 껌질, 상추심, 베닝턴, 마노 등등이요. 하지만 저희가 그림책에 넣을 구슬은 유리구슬 중에 가장 평범한 구슬을 선택했어요. 고양이 눈처럼 생긴 단순한 구슬이죠. 기계로 만든 구슬인데, 우리들 대부분 어린 시절에 이런 구슬을 가지고 놀았을 거예요. 가장 평범한 구슬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구슬이기도 하고, 평범함 속에서 놀라운 것을 찾아낸다는 것이 이 책의 큰 주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에릭: 모든 그림책은 스케치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보물이 떨어졌어요!』의 초기 스케치들입니다. 스케치를 통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기도 하고 책 전체의 모양과 스타일을 발전시켜나가기도 해요.

『한밤의 정원사』이 스케치들이에요. 이건 『바다와 하늘이 만나다』의 초기 스케치고요. 우리는 주인공 ‘호’와 할아버지의 캐릭터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 책에서 둘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던거죠. 마지막으로 『The Antlered Ship』에 나오는 스케치예요. 초기 스케치 단계와 책으로 완성된 그림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스케치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이것저것 실험도 해 보고, 무언가 발견하게 되기도 하지요. 『The Antlered Ship』의 초기 스케치 단계에서는 여우의 모습을 의인화하여 상상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책이 완성되었을 때는 보다 자연 상태의 모습에 가깝게 묘사되었죠.

테리: 스케치를 완성하고 나면, 더미를 만들어요. 더미는 말 그대로 책 전체를 대략적인 형태로 완성해 보는 거예요. 더미를 만들어 보면 책의 길이가 어느 정도가 될지, 책을 펼쳤을 때 어떻게 보일지 등에 대해 가늠할 수 있어요. 더미는 최종본을 만들어가는데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지요. 더미는 보통 몇 가지 초안을 거치는데, 이건 『하늘에서 보물이 떨어졌어요!』 최종 더미입니다.

에릭: 또 다른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저희의 첫 책이었던 『한밤의 정원사』 더미예요.

테리: 편집자와 아트 디렉터가 저희 더미를 보고 승인을 해 준 후에야 본격적으로 최종 그림 작업을 시작해요. 책은 공동 작업으로 완성되죠. 편집자와 아트 디렉터도 스토리와 책 전반의 디자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보태 줍니다. 에릭과 저는 보통 연필로 최종본에 들어갈 그림을 그립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작업도 실험해 보고 있어요. 이건 연필로 『하늘에서 보물이 떨어졌어요!』의 최종 그림을 완성한 모습입니다.

에릭: 테리와 제가 함께 그림을 그리는 작업 과정이에요. 이렇게 그림 하나를 함께 그리기도 하고 어떤 그림은 부분을 나누어서 각자 그린 후에 나중에 합치기도 해요. 늘 더미를 참고해요. 더미는 최종본을 위한 청사진이면서 가이드 역할을 해 줍니다. 그래

서 둘이 다른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최종본을 머릿속에 그려두고 작업하는 거지요. 스케치 작업을 마치면 스캔을 해서 포토샵으로 불러냅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각 요소들을 따로 작업한 후에 포토샵으로 요소들을 합쳐 최종 장면을 만듭니다.

테리: 포토샵으로 작업하는 과정입니다. 각 요소들을 그려서 스캔을 한 후 포토샵으로 그것들을 조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책의 제본선을 고려해 정확한 크기로 배치하지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여러 레이어로 작업합니다. 마치 애니메이션처럼요. 먼저 바탕을 만들고 그 다음 다양한 요소들을 그 배경 위에 더해 나갑니다. 이렇게 여러 레이어로 그림을 만들어가는 작업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 좋습니다. 작업을 하는 도중 일러스트 요소를 수정하거나 특정 요소를 텍스트에 맞게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지요. 『하늘에서 보물이 떨어졌어요!』의 펼침면을 예로 보여드릴게요. 일러스트레이션에 따라 레이어가 아주 많아지기도 해요. 가장 복잡한 장면을 작업할 때는 레이어가 수백 개가 되기도 해요. 순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파일을 관리할 수 없게 됩니다.

에릭: 『바다와 하늘이 만나다』 작업 과정이에요. 과정은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이 경우에는 이미지에 색깔을 더해 나가는 경우였지요. 연필로 그린 스케치 위에 색을 입히는 과정도 레이어를 이용한답니다.

테리: 이렇게 저희가 책 한 권을 작업하는 전체 과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여드렸어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재미있게 잘 보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보물이 떨어졌어요!』의 이미지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들이기도 해요.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저희 책을 출간하고 있는 도서출판 북극곰과 한국에 있는 독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의문

이루리
(세종사이버대)

테리! 당신이 그랬지요. 두 사람이 그동안 만들었던 다른 책들처럼 『하늘에서 보물이 떨어졌어요!』도 어떤 한 장의 이미지에서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10년 전쯤에 그렸던 그림이요. 한 장의 이미지를 상상력을 발전시킬 도약판으로 삼는다고요. 그리고 곧잘 몇 마리가 상류층이 쓰는 중산모를 쓰고 구슬을 둘러싸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었어요.

제가 궁금한 건 바로 그 한 장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냐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작품을 만들게 되는 데 결정적인 영감을 준 이미지를 어떻게 그리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두 사람이 제 작품을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로 꿈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꿈에서 아기곰이 엄마 곰의 코를 가려주는 장면을 보고 『까만 코다』를 썼어요. 그리고 꿈에서 아기곰이 사냥꾼에게 입김을 불어주는 장면을 보고 『북극곰 코다, 호』를 썼어요. 혹시 두 사람도 꿈에서 오리지널 이미지를 얻나요?

이번에는 에릭에게 질문할게요! 창작을 할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아주 외롭게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두 사람은 형제 사이인데 우애가 넘치고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축복받은 일입니다. 저도 형이 있지만 성격과 취향이 너무나 달라서 자주 만나지 않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사이가 좋은 밴드도 이따금 솔로 작업을 하듯이, 두 사람도 듀엣으로 작업하면서 느끼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가끔은 나만의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나요? 온전히 나만의 이야기와 나만의 그림으로 말이에요.

덧붙여서 질문하자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작업하기에 하나의 스타일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진짜 자신의 그림 스타일은 다르지 않나요? 진짜 에릭의 그림 스타일은 무엇인가요? 진짜 테리의 그림 스타일은 무엇인가요? 정말이지 두 사람은 자기만의 작품에 대한 욕망이 없나요?

아니면 이미 각자의 개인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 점이 저는 아주 몹시 궁금합니다!

질의문

이루리
(세종사이버대)

Hello! My name is Lee Rury. I am a picture book author, editor and a professor. I teach creative writing for college students. Thank you very much for the wonderful presentation on how you work together for a picture book.

My first question is for Eric. Eric, according to the presentation you prepared, <It Fell from the Sky> has begun with a standalone image, which you draw more than 10 years ago. And you used the image as the springboard for further imagination. You showed us the image with several insects wearing top hats and investigating a marbel.

What I am curious is how did you start the first image at the very beginning. The image is so crucial to this book and I would like to hear how did you start drawing the first sketch.

I am not sure if you have seen my picture books. I usually get inspiration for my story from my dream! In fact, I wrote the story of Black Noses after I saw a baby polar bear covering his mom's black nose in my dream. And the second story <The Warm Breath> came from another dream. A baby bear blowing his warm breath to a hunter in my dream. I wonder if you also get any inspiration from your dreams?

This question is for Terry. I think you two are very lucky to have each other to develop the story together. Well, I feel very lonely when I write a story. You are brothers, and I think it's a blessing to work together! I have a totally different characters and taste for life with my elder brother so we seldom see each other. No matter what kind of good team work they have, a band members want to have their own single music. I wonder if you also have that moment that you would like to have your own story and illustrations sometimes even with your good team work?

In addition, I wonder if you two have any different styles or taste for illustrations? What is your original or preferred style? What about Eric?

Or maybe each of you are already working on your own project? I am really curious about this.

일본에서 한국문학의 저변 넓히기

김승복

(‘쿠온 CUON’ 출판사 대표)

제 고향은 전라남도 영광입니다. 굴비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원전이 들어왔습니다. 밭과 논이 있던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큰 도로가 여기저기 생기면서 새로운 상점가들이 생겨났습니다. 학교 주변에 주산학원, 태권도 학원 정도만 있었는데 피아노 학원이 세 군데나 생기고, 웅변학원이 생기고, 새로운 문방구가 또 문을 열었습니다. 전학생이 엄청 늘었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 도시에서 온 전학생들입니다. 1980년대 초반, 도시로! 도시로! 이사를 가고 좋은 학교에 다니기 위해 도시로 전학을 가던 시대입니다만 우리 동네에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풀장이 생기고 수도꼭지에서 온수가 나오고, 점심시간에 따뜻한 국물이 있는 급식을 먹고, 심지어 엔지니어로 온 미국인이 진행하는 영어회화 수업시간도 있었습니다. 원어민에게 영어 샤워를 했던 셈이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학교에 도서관이 생긴 것은 그 어떤 변화보다 제 인생에 결정적인 한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철이 들어서야 이런 모든 것들이 원전의 위험수당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책 속의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빠져 지금도 허우적거리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괴도 루팡』, 『삼총사』, 『몬테크리스토 백작』, 『아라비안 나이트』, 『80일간의 세계일주』, 『노인과 바다』, 『지킬박사와 하이드 씨』, 『죄와 벌』, 『춘희』 등 세계명작을 비롯하여 『봉이 김선달』, 『방랑시인 김삿갓』, 『토정 이지함』, 『허생전』 등 공부 시간에도, 밥을 먹으면서도, 어서 책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이 안달증은 한 번의 싫증도 없이 쭉쭉 52살이 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읽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책을 만들고 책방을 차려 책을 파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출판사와 책방을 운영하면서 일본어권 독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한국문학을 알릴 수 있을까(라고 쓰지만 어떻게 팔 것인가가 본심) 고민하고 머리를 쓰고 실지로 해보았던 경험들을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출판사를 차리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는 한국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먹거리, 패션, 영화 등이 소개되었고 드라마도 인기를 얻습니다. 2003년 NHK T

V에서 방영된 배용준이 나오는 《겨울연가》는 2021년 지금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은 IT 강국으로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던 때입니다. 저는 당시 일본 광고회사를 다니다 독립하여 한국의 재미있는 솔루션들을 활용하여 웹상으로 서비스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고업계에서도 IT 업계에서도 한국 아이템은, 한국인 김승복이 하는 제안은 바로바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한국의 많은 네티즌들은 블로그 등에서 캐릭터 폰트를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기분에 맞추어 블로그를 쓰고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미키마우스나 헬로 키티 폰트가 그것들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을 한국에서 들여오고 일본의 폰트 디자이너를 모아 캐릭터 폰트를 만들게 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물론 캐릭터 회사와 캐릭터 사용에 관한 계약도 해야 했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만드는 제조사며 야후 등 블로그 서비스를 하는 포털 사이트도 설득해 함께 해야 하는 빅 비즈니스였습니다. 이때 일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폰트 디자이너를 모아 일본폰트협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캐릭터 폰트 서비스의 핵심은 폰트 디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졸업한 일본 대학 예술학부 당시 미술학과 학장님을 찾아서 한국의 이 재미난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드리고 폰트협회 회장님이 되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일본 사회는 참으로 보수적이기도 하지만 이 비즈니스는 상용화되었고, 폰트협회는 폰트 콘텐츠를 매년 열어 신인 폰트 디자이너들을 발굴하는 등의 기특한 일들도 해냈습니다.

(이 폰트협회를 운영하면서 얻은 벤더와 소비자의 니즈를 어떻게 하면 하나로 이어서 모두가 행복한 지점을 만들 수 있을까, 는 나중에 출판사업을 하면서 두루 적용을 해 보게 됩니다.)

한국의 다양한 웹 솔루션이며 문화를 제 비즈니스로 연결해가며 승승장구하던 제게 2007년 아메리카의 금융위기 리먼 쇼크는 제 인생에도 쇼크를 안겼습니다. 광고업계 전반이 얼어붙는 상황이었고 우리 회사도 타격을 받습니다. 결정된 프로젝트가 줄줄이 최소가 되고…… 그래서 저는 업종을 바꾸어 한국문학을 전문으로 번역 출판하는 출판사를 차렸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문학을 전공하여 양국의 현대문학을 소개하는 일은 제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2007년 출판사를 차려 바로 책을 내지 않고 약 3년 정도 한국과 일본의 출판사를 상대로 에이전시 업무를 하며 출판계의 흐름을 읽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시작으로 ‘새로운 한국문학시리즈’를 냅니다. 김중혁, 김영하, 김애란, 김연수, 편혜영, 은희경, 김훈, 박성원, 최은영, 정세랑, 황석영, 시인 김혜순, 그리고 올 11월에 신경숙의 단편집까지 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 명작선으로 최인훈의 『광장』 오규원 시선집, 정지용 시선집을 냈고, 한강의 시를 시작으로 새로운 시집 시리즈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토지』도 2016년도부터 내고 있는데 제15권이 12월 중순에 발행되었습니다. 토지는 7년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2024년에나 완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한국문학을 낸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2011년 당시 일본의 서점에는 한국문학코너가 따로 없을 정도도 번역 종수가 적었는데 지금은 조그만 책방에도 한국 서적 코너가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종수가 번역이 되었고 또

그만큼 팔리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읽고 싶은 한국 책 50선』 가이드북 제작 (K-BOOK 진흥회 설립)

『채식주의자』를 만들어 서점 영업을 다니며 번역된 한국 문학이 참으로 적은 것을 직접 목격한 뒤 번역자 몇 명과 함께 『일본어로 읽고 싶은 한국 책 50선』 가이드북을 만들어 출판사에 배포하였습니다. 문학을 비롯하여 인문, 역사, 실용서, 그림책, 만화까지도 일본에서 어필할 만한 책들을 골라 안내하는 번역출판 권장서인 셈입니다. 가이드 북을 낸 뒤에는 꼭 편집자들을 모아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매번 100사 정도가 모이는 관심도가 높은 설명회였습니다. 설명회를 연 이유는 편집자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편집자 개개인의 관심사를 알아야 그들이 원하는 장르의 책을 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개한 책들이 그간 200여 타이틀 정도가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독자들과 함께 가는 한국문학기행

『토지』를 발간하고 나서 독자들 30여 명과 함께 박경리 선생의 고향 통영에 가서 묘소 참배도 하고 소설의 초반 무대인 평사리에도 갔습니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내고 나서는 광주에 가서 광주 민주화 항쟁의 흔적들을 돌고 한강의 아버지 한승원 선생님에게 광주정신에 대한 강연도 들었습니다.

제주 4.3 항쟁 70주년 기념 해였던 2018년에는 김석범 선생의 화산도를 읽고 석범 선생님이랑 함께 제주도에도 갔습니다. 같은 멤버들이 70주년 기념식에도 참가를 하여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기도 했지요.

그리고 2019년에는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을 읽고 대구에도 갔습니다.

2020년에는 김훈의 『흑산』을 읽고 흑산도에 가려고 답사도 다 마쳤는데 코로나로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이 문학기행에는 5-6명의 기자들도 함께 가는데 다들 다녀와서 크게 기사를 쓰기 때문에 책 소개도 되고 지역관광으로도 이어져 일석이조가 됩니다.

번역 콩쿠르

한국 책이 많이 번역되려면 번역가가 필수입니다.

번역가 발굴과 번역가 육성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받아 번역 콩쿠르를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회는 최은영 『쇼코의 미소』 중에서 단편 2개를 번역해서 내게 했는데 총 212명이 응모하였습니다. 단편 2개를 번역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2개를 번역해서 낸 사람이 212명이라면 도중에 좌절한 사람은 몇 배나 될 터입니다.

수상식 때 최은영 씨가 해준 메시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쇼코의 미소』 한국어판은

최은영이 쓴 한 개만 존재하지만 일본어판은 212개의 쇼코의 미소가 있습니다”

이후로 백수린의 『조용한 사건』, 정용준 『선릉 산책』 (제2회), 박범신 『토끼와 잠수함』, 윤이형 『대니』 (제3회), 최윤 『하나코는 없다』, 윤성희 『어떤 밤』 (제4회), 윤후명 『하얀 배』, 황모과 『모멘트 아케이드』 (제5회)로 진행을 했습니다.

매년 평균 130여 명이 꾸준히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상을 수상한 이의 번역으로 책을 내기 때문에 번역가가 되려는 이들에게는 큰 모티ベーション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 방식을 보고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영어권을 비롯하여 다른 언어권에서도 함께 실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6회가 되는 내년에는 소설만이 아니라 장르를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편집자와 함께 한국 출판사 투어

한국 서적에 관심이 많은 편집자, 번역자를 모아 한국의 출판사를 방문하여 직접 편집자들끼리 교류하는 시간입니다. 창비, 문지, 민음사 등 문학에 강한 출판사를 방문하여 담당 편집자가 자신이 만든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다양한 한국의 편집자들과 함께 맛난 음식과 술을 가운데 두고 친분을 쌓아갑니다. 출판사 방문에 이어 서점 투어도 하다 보면 일본의 편집자는 점점 한국 서적에 대한 욕구가 강해집니다.

이 투어를 통해 한국문학 시리즈를 내고 있는 편집자가 네 명이나 됩니다. 쇼분사, 아키쇼보, 쇼시칸칸보, 신센샤. 시리즈까지는 아니어도 함께 갔던 편집자들이 지속적으로 한국 서적에 관심을 갖고 번역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문학 붐을 이끌고 있는 주역들이입니다.

한국 책의 번역 확산에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편집자들이 직접 한국에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투어는 코로나로 오갈 수 없어 현재 온라인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장은수 출판평론가에게 한국 출판 현황을 시작으로 매달 문학 편집자, 인문 편집자, 그림책 편집자, 문예잡지 편집자에게 직접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K-BOOK 페스티벌

책을 만드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책을 쓰는 사람, 책을 파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페스티벌을 매년 가을에 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작가를 불러오고 독립서점들을 초대하여 일본의 출판사들도 함께 하여 일본 내 한국 책 축제를 여는 것이지요, 2019년 첫해에는 출판사 14사가 함께 직접 회장에서 책을 팔며 진행을 하다가 2020년, 2021년에는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한강의 작품을 번역한 4명이 한강의 작품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한강 작가가 직접 출연하여 일본 독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나기 15분 전에 히라노 게이치로 씨가 깜짝 출연하여 코로나 시절의 소설가로서 어떤 자세로 문학을 하는가 하는 미니 대담도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김연수 작가를 특집으로 4월부터 매달 김연수 독서회를 열고 축제 마지막에 김연

수와 호시노 토모유키 작가가 “소설가의 일”이라는 테마로 대담을 하였습니다. 올해의 깜짝 출연은 김애란 작가였습니다.

이 K-BOOK 페스티벌은 이벤트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한국 책을 낸 출판사들이 직접 출점하여 자신들의 책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스타일입니다. 올해는 44개의 출판사가 함께 하였습니다. 판매는 전국의 책방 51곳에 팝업으로 한국문학 책방을 유치하여 진행을 했습니다.

매년 규모가 배로 늘어나는 모두가 기다리고 즐기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 페스티벌이 다른 언어권에서도 벌어지고 나중에는 한국에서 올림픽처럼 열면 어떨까 하는 상상도 해 봅니다.

번역 페스티벌

한국문학만이 아니라 영어, 중국,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의 문학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번역자, 편집자들과 함께 하는 페스티벌을 저희가 개최합니다. 한국문화원의 시설도 좋고 넓은 홀에서 진행을 하지요. 해외문학을 좋아하는 독자들이 찾아옵니다. 이 독자들은 일테면 문학의 해비 유저들입니다.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개최하는 번역 콩쿠르의 수상도 이때 해서 수상자들의 자부심을 한껏 높이기도 합니다. (“세계문학 속에 한국문학이 있다”는 소리내지 않으면서 존재감을 보여주는 페스티벌입니다)

책방 “책거리” 운영

2015년에 한국 원서를 파는 전문 책방을 세계적인 책방거리 도쿄 진보초에 열었습니다. 문학을 중심으로 약 4,000권 정도를 진열 판매하고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사실 한국의 책방과 거의 비슷합니다.

책도 팔고 한국과 한국문화를 중심으로 한 이벤트를 연 100회 정도 열고 있습니다. 작가, 번역가 초청 토크를 비롯하여 보자기 워크숍, 한국의 먹을거리, 한국의 명소 소개, 최근에는 한국의 독립 책방을 온라인으로 매주 한 곳씩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제한이 많기도 하지만 코로나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한국과 연결하는 일이 큰 비용 없이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책거리는 책을 통해서 사람을 연결하는 장소입니다. 어쩌면 책거리 자체가 한 권의 책이기도 합니다. 책 속에 들어가고 싶어 안달이 난 어린 김승복이 아예 책방을 차린 것이라고 할까요.

한국문학의 매력은 무엇인가

한국문화, 문학을 특집으로 다루는 일본의 미디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이저 신문에서 한국 서적의 서평이 실리는 빈도도 늘었으며, 패션지, 여성지, 시사 주간지, 전문지를 비롯하여 인터넷 매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한국의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여행이

제한된 경향도 있어서인지 이 문화의 소개는 인기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나 저희 책방에 취재를 오는 미디어 수도 한 달에 10건이 넘습니다.

한국문학의 매력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미디어가 해오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제 스스로에게도 늘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마징가 제트, 캔디 캔디 등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제 세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에도 일본 만화책, 일본의 패션지 등을 펼쳐보고 J-POP 을 흥얼거렸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무라카미 하루키 등의 소설에 빠져들었습니다. 개인적이어서 하염없이 사소한 이야기들에 민족이며 이데올로기, 민주화 운동 이야기보다 더 끌렸습니다.

소설가 김연수는 저와 같은 세대인데 이상문학상 수상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를 읽고 아, 나도 소설을 쓸 수 있겠다.” 개인적인 이야기가 주는 힘에 연수 작가도 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만이 아니라 김영하, 박민규, 김중혁, 하성란, 조경란 등의 같은 세대 작가들이 같은 문화적 세례를 받았다고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일본문학에는 있다! 90년대에 일본문학이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쓴 작품들이 2021년 지금 일본어권 독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개인의 서사에 사회적 이슈, 역사적 사건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잘 엮여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문학에서 많이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본어권 독자들도 자신들에게 없는 부분을 동경하는 것이 아닐까요.

한편 한국의 에세이들이 일본 10대, 20대에게 인기입니다.

김수현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에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등 자기계발서에 가까운 에세이가 어느 책방에서나 잘 팔리는 코너에 등만 보이고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전면 표지를 보인 채 누워 있습니다. 마스다 미리라는 작가의 책이 한국에서 번역 출판되어 많이 팔리는 것과 같습니다.

에세이가 이렇게 많이 읽히는 것은 정서, 공감의 지점이 같아서일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10대, 20대의 정서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지요. 이는 생활 스타일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보려고 하는 것이 거의 다 보이는 세상이 되었기도 해서입니다.

남의 것이 멋있어 보여 동경을 하고, 나와 같은 것에 공감을 하여 친밀감을 느끼는 것에 지갑을 여는 것은 국경을 넘고 언어의 장벽도 넘어섭니다.

아마 이 현상은 서적만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 전반에 걸친 소비경향이기도 할 것입니다.

일본어권 독자들에게 한국의 知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2010년부터 출판유통 현장에서 한국 서적의 번역출판을 해오면서 일본어권에 한국의 지는 어떻게 소개가 되었고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를 종종 생각하곤 합니다.

쿠온에서는 2014년에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 140명에게 자신이 읽은 한국의 지- 5권 정

도의 책을 소개하는 원고를 받아 『한국 조선의 지를 읽다』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에서도 번역출판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지를 읽다』, 위즈덤하우스, 2014년)

2020년에는 후속판 『한국 조선의 미를 읽다』를 한일 80여명으로부터 원고를 받아 묶어 냈습니다. 조만간에 한국어판도 나올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조선의 마음을 읽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권은 글을 쓴 필자들이 자신의 추천 도서를 소개하는 형식입니다.

앞으로는 특정인의 소개가 아닌, 문학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역사, 실용서 등 한국어에서 일본어로 번역된 서지 정보를 망라하는 데이터베이스작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종대왕 시절부터 시작된 조선통신사 사절단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책으로 남겨진 한국 조선의 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자 합니다.

1945년 이전, 1945년-2000년, 2000년 이후로 기간 구분을 하여 일본에서 번역 출판된 한국의 책(K-BOOK)을 각 연도별로 서지정보를 일람화하고 전문가의 해설을 덧붙여 웹과 책으로 펴낼 계획입니다. 이 작업은 자금지원이 절실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전히 이야기, 소설, 책이 좋습니다. 한국어와 일본어 사이에서 먼저 읽은 재미있는 책들을 소개하고 만드는 일을 할 때가 가장 신납니다.

여러분 도료에 오시거든 이 신나는 곳에도 한번 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문

이은주

(한국문화기술연구소)

김승복 대표님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문학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해오신 많은 노력들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벤더, 공급자와 소비자의 니즈를 하나로 잇고자 하는 대표님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에서 불고 있는 한국 문학에의 관심에 대표님과 쿠온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며 궁금한 점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본어로 읽고 싶은 한국 책 50선”이라는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출판사에 배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번역자 몇 분과 함께 문학을 비롯하여 인문, 역사, 실용서, 그림책, 만화 등 일본에서 어필할 만한 책들을 골라 안내하는 번역출판 권장서인 셈인데, 이 책들 중에서 그동안 200여 종이 번역 출판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이드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가이드북을 지금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지입니다. 일본에서 어필할만한 책들을 고르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 일이 K-BOOK진흥회 설립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K-BOOK진흥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한국 문학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기획들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번역 페스티벌’을 열어 한국문학을 소개하고 ‘번역 콩쿠르’를 개최하여 번역가를 발굴하고 육성하신다니 한국 문학 조금 넓게는 문학에 대한 대표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문학의 저변을 넓히고 있는 많은 기획과 실천 중에 ‘평론’과 관련된 내용이 보이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조금 넓게 본다면 하시는 일들이 어느 정도 평론, 감상자가 작가나 작품에 내리는 가치 평가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있는 감상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평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혹 평론과 관련된 기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지지를 읽다』 매우 재미있고 의미있게 읽었습니다. 조만간 나올 한국어 판 『한국 조선의 미를 읽다』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한국 조선의 마음을 읽다”는 감이 안 잡힙니다. 말씀하신 것으로는 이 세 권이 동일한 스타일로 나올 것 같은데, 준비 단계라 어려우실 듯 합니다만 대표님이 생각하는 ‘한국의 마음’은 무엇인지요. 전작들로 보면 선자들이 ‘한국의 마음’을 보여주는 책을 소개하는 형식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이 소개하고 싶은 책은 무슨 책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Institute for Arts and Technology of Korea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제20회 국제학술대회

접촉하는 예술들 : 예술과 기술의 공진화(供進化)
비매품

2021년 12월 14일 인쇄
2021년 12월 15일 발행

발행처 /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330-71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D동 205·206호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편집 · 제작 / 한국문화기술연구소

TEL. 041)550-3798

<https://cms.dankook.ac.kr/web/dkcti/-8>

Copyright© Institute for Arts and Technology of Korea